백두산

46호 - 주체91(2002)년 5월 30일 (목)　　백두산 편집부

김정일장군님은
통일혁명의 영도자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한민전≫ 대변인, 이회창의 반민족 반통일 죄악 규탄 성명

민족반역자 이회창은 극악한 반통일분열주의자로서의 검은 본성을 또다시 날날이 드러내놓았다.

이회창은 지난 22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6.15남북공동선언의 통일관련 조항을 걸고 들며 시비하다못해 자신이 집권하면 6.15남북공동선언 2항을 ≪폐기≫하겠다고까지 공공연히 떠벌였다.

그는 23일 저녁에 있은 토론회라는데서 또다시 이같은 악담을 늘어놓았다.

≪한국민족민주전선≫은 이회창의 추악한 망발을 자주적 평화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염원과 지향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도전으로, 6.15공동선언을 전면 부정해나서는 용납못할 반민족적, 반통일적 죄악으로 낙인하고 이를 준열히 단죄, 규탄한다.

6.15공동선언은 7천만 겨레의 일치한 염원과 의지를 반영한 조국통일의 이정표이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과 온 세계가 전폭적으로 지지환영한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통일정강이다.

특히 6.15공동선언 제1항과 2항은 남과 북의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구체적 현실로부터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원칙과 실천적 방도를 명시하고 있다.

우리 민중은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는 구호를 높이 치켜들고 6.15공동선언발표 2돌이 되는 올해에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해 적극 투쟁하고 있다.

그런데 이회창역적이 역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2돌을 눈앞에 둔 시기에 감히 민족자주평화통일선언인 6.15공동선언의 2항을 전면 부정하는 망발을 늘어놓은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6.15공동선언에서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 남의 연합제안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그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한 것은 우리 나라의 구체적 현실과 조건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평화통일방도로 된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곧 통일을 반대하고 평화를 거역하는 것이며 평화를 부정하는 것은 다름아닌 전쟁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회창역적이 6.15공동선언 2항의 ≪폐기≫를 공공연히 운운해 나선 것은 결국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반대하고 이 땅에 핵참화를 몰아오고야 말려는 용납못할 반통일반평화역적행위가 아닐 수 없다.

원래 이회창은 2년전 온 민족이 환희와 충격속에 6.15공동선언발표를 적극 지지찬동할 때 뒷골방에서 손자와 화투놀이를 하며 그것을 외면한 민족반역자이며 처음부터 6.15공동선언을 시비중상하며 헐뜯어온 반통일분자이다.

이회창이야말로 우리 민족과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민족반역자, 민족의 원수이다.

이회창역적을 그대로 두고서는 이 땅의 자주화와 평화도, 조국통일도 기대할 수 없다.

전국민은 민족과 민중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이 더러운 집권욕을 채우기 위해 미국에 아부굴종하고 6.15공동선언을 전면부정해 나서면서 민족의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이회창역적을 매장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총분기해야 한다.

이회창역적은 분노한 우리 민중의 철퇴에 얻어맞아 비참한 종말을 고하기 전에 대선후보에서 스스로 물러나고 정계에서 사라져야 한다.

우리 ≪한민전≫은 민족의 반역자들을 결단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전국민과 함께 이회창역적과 친미반통일대결분자들의 가소로운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고 6.15공동선언의 이행으로 조국통일의 새 아침을 반드시 앞당겨오고야 말 것이다.

주체91(2002)년 5월 27일
서울

특등반통일역적 이회창의 망발을 규탄한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의 2항을 부정해 나선 남조선의 리회창의 망발은 지금 온 겨레의 커다란 항의와 규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22일 리회창은 ≪관훈클럽≫이 조직한 ≪대통령선거≫후보토론회라는데서 6.15공동선언의 두번째 조항을 터무니없이 시비하면서 이 조항을 페기해야 한다고 떠들어 댔다.

이것은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가로 막는 극악한 반통일분자의 체질적근성을 그대로 드러 내 놓은것이다.

북과 남이 서로의 통일방안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그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한 6.15공동선언의 두번째 조항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민족의 공존공영과 통일을 이룩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유일한 방도를 명시한것이다.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오늘의 조건에서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방도는 이 길밖에 없다.

이것을 부정한다면 북과 남사이에 대결이 격화되고 전쟁으로 나아가게 되며 종당에 민족파멸이라는 엄청난 후과를 초래하게 되리라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회창이 공동선언의 두번째조항을 부정해 나선것은 북과 남의 공존은 물론 교류협력도 반대하고 통일문제의 평화적해결도 바라지 않고 있다는것을 여실히 실증해 준다. 리회창이 민족의 공존과 평화통일방안을 반대하면서 마치도 6.15공동선언의 다른 조항은 찬성하는것처럼 말하는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이다.

공동선언의 두번째조항을 반대하는것은 북과 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도 반대하고 공존도 반대하며 결국은 6.15공동선언전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것이다.

도대체 나라의 평화적통일방도를 거부해 나서는 리회창에게 과연 무슨 통일방안이라도 있는가.

리회창자신이 스스로 실토한바와 같이 그에게는 통일방도와 관련한 아무런 대안도 없다. 있다면 랭전시대의 낡은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로서 그것은 전쟁선언이나 같은것이다.

애당초 리회창은 6.15공동선언의 채택을 달가와 하지 않고 그것을 악랄하게 비방중상하면서 그 리행을 음으로 양으로 방해하여 왔다.

리회창이 이번에 온 민족과 전 세계가 지지환영하고 있는 통일리정표인 6.15공동선언에 로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선것은 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 공동번영과 평화적발전을 가로 막고 기어이 전쟁의 길로 나가겠다는것을 공공연히 선언한것으로 된다.

이번 사실을 통하여 리회창은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해 보려는 미국에 추종하여 북침전쟁마차를 끄는 마부라는것이 더욱 명백해 졌다.

현실은 리회창이야말로 권력을 위해서라면 나라의 통일도 안중에 없고 민족의 운명과 리익도 서슴없이 해치는 정치간상배이고 천하에 없는 전쟁광신자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 주고 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리회창의 망발을 6.15북남공동선언을 백지화하고 민족을 핵전쟁의 참화속에 몰아 넣으려는 용납 못할 민족반역행위로 락인하면서 이를 온 겨레의 이름으로 준렬히 규탄한다.

리회창과 같은 자가 집권하면 북남관계는 랭전시대의 대결상태로 되돌아 가고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터질것은 불보듯 뻔하다.

지금 남조선의 정계와 언론계를 비롯한 각계에서 리회창의 이번 망발을 두고 ≪남북공동선언을 뿌리채 흔들어 놓은 망언≫, ≪랭전론리와 분단적사고를 보여주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력히 규탄해 나서고 있는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독초는 제때에 뽑아 버려야 후환이 없다.

리회창따위는 우리 민족의 누구도 상종할수 없는 존재이다.

남조선의 각당, 각파, 각계인사들과 인민들은 리회창과 같은 극악한 민족반역자, 특등반통일역적을 완전히 제거하고 매장해 버리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할것이다.

주체91(2002)년 5월 28일
평 양

2 종합
- 백송혁명사적지에 깃든 이야기
- ≪2.16동지회≫, 장군님을 열렬히 경모
- 새로 나온 명곡들
- 각계, 이회창 망발 규탄
- 북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규탄
- 미국은 대북강경정책을 포기하라
- 미제의 생화학전은 조선민족 멸살을 노린 고의적인 범죄행위(2)

4 노작
-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2)

6 세기와 더불어
- 9장 2절 부자와 가난뱅이(1)

8 칭송
- **김정일**동지는 온 인류가 흠모하여마지않는 수령

9 노동신문 정론
- 장군의 역사 영원히 흐른다(1)

10 김일성대학방송강좌
- 주체혁명위업 계승완성 원대한 구상

11 한국민족민주전선
- 경찰당국, 통일연대 사무처장 등 연행하는 폭거 자행
- 비열한 고발행위

12 투쟁보도
- F-X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신문 방송, 김대통령 F-X재가 안다뤄
- 한총련 의장 연행, 공동선언이행 가늠자
- 한총련 의장 연행, 전면전 선포한다
- 10기 한총련 의장 구속 법적 근거 없다
- 6.15부정은 수구세력 위한 딴지걸기

15 운동강좌
- 한국민민운동단체들간의 연대연합과 대규모연합전선조직체 건설문제(1)

백송혁명사적지에 깃든 이야기

특별명령

전쟁으로 나라가 시련을 겪던 때에 싸우는 고지들에서 입대전 대학생들을 소환한다는 최고사령관 특별명령이 하달되였다.

주석께서 승리한 조국땅우에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실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그 인재양성을 위하여 취하신 조치였다.

그리하여 백송리 산속에 꾸려 진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어제날의 전사들이 ≪학습도 전투다 !≫라는 구호를 들고 민족인재로 자라나는 경이적인 사실이 펼쳐 졌다.

≪전승≫의 메아리

1952년 4월 백송리를 찾으신 주석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앞에서 약 2시간에 걸쳐 ≪조국해방전쟁의 전망과 종합대학의 과업≫이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하늘에선 적기의 동음이 울려 오고 산너머 포성이 울부짖었으나 주석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은 ≪전승≫의 메아리처럼 교직원, 학생들의 가슴에 파고 들었다. 전승의 날은 15개월앞에 있었지만 그들은 이미 승리를 확신하였다.

육친의 정

주석께서 해빛 같은 미소를 지으시며 녀학생들의 호실을 찾으시였다.

퇴색한 군복 솜저고리와 솜바지를 입고 있는 녀학생들을 보시며 못내 가슴 아파하신 주석께서는 일군들에게 전쟁이지만 이들에게 새 교복을 만들어 주고 학습장도 보장해 주며 모포와 솜포단도 해결해 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의용군출신학생들은 고향의 부모를 만난듯 너무 기뻐 그이의 옷자락에 매여 달리며 흐르는 눈물을 걷잡지 못하였다.

그들을 달래시느라고 여러모로 마음 쓰시던 주석께서는 ≪녀동무들은 전선에 나가면서도 화장품보따리를 안고 간다지 ?≫하고 웃으시였다.

그바람에 웃음이 터지고 방안 분위기가 호전되였다.

눈물을 거두고 기뻐하는 처녀대학생들을 바라보시며 주석께서는 환하게 웃으시였다.

2002/05/28 조선중앙통신

≪2.16동지회≫ 회원들, 김정일장군님을 열렬히 경모

부산에서 활동하는 ≪2.16동지회≫ 회원들이 민족의 태양이신 **김정일**장군님을 열렬히 경모했습니다.

지난 5월 20일 모임에서 김용재회장은 민족자주통일선언이 발표된 6.15가 다가오니 **김정일**장군님을 우러러 격정을 터뜨리던 2년전 그때의 감격이 되살아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역사의 그날 만면에 햇빛같은 미소를 담으시고 이남 대표들을 만나주시며 활달한 필체로 공동선언문에 서명하시던 장군님의 거룩한 영상이 금시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같다. 참으로 **김정일**장군님은 민족의 태양이시고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그분의 영상은 뵈옵기만해도 새 힘이 솟구치고 통일에 대한 확신이 넘쳐난다. 오늘의 한반도상황이 말해주듯이 오직 **김정일**장군님을 따라야 통일이 온다. 우리 모두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발벗고 나서자.≫

그의 말에 회원 모두가 전적인 호응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모임에서는 6.15공동선언발표 2돌을 맞으며 6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기념행사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에 각계 민중속에서 역사적인 평양상봉 비디오시청을 널리 조직하며 기념카드발송, 결의모임 등 실정에 걸맞는 다양한 행사들을 벌여나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91, 5월 28일

새로 나온 명곡들

최근 조선에서 시대의 명곡들이 많이 창작되여 인민들속에서 널리 불리워 지고 있다.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탄생하신 백두밀영고향집을 노래한 가요 ≪흰눈 덮인 고향집≫을 비롯하여 가요 ≪축복 받은 나의 삶≫, ≪나의 일기≫, ≪우리는 하나≫ 등은 그 대표작들이다.

가요 ≪축복 받은 나의 삶≫, ≪나의 일기≫는 김정일령도자의 축복속에 참된 삶을 누려 가는 인민들의 행복한 모습과 그이를 깨끗한 량심과 신념으로 따르는 인민들의 순결한 마음을 생동하게 반영하고 있다.

가요 ≪우리는 하나≫는 땅도, 피줄도, 언어도, 력사도 하나인 조선민족이 둘이 되면 못 살고 둘 합치면 더 큰 하나가 된다는 겨레의 통일의지를 절절하게 보여 주고 있다.

이밖에 김정일장군님을 끝없이 흠모하고 따르는 조선인민의 사상감정을 반영한 가요 ≪인민은 그 품에 길이 살리라≫, ≪장군님을 온 겨레가 따르옵니다≫ 등과 전통적인 조로친선의 정을 노래한 가요 ≪우리 친선 영원하리≫도 있다.

2002/05/28 조선중앙통신

각계, 이회창 망발 규탄

각계에서 이회창 한나라당집단이 동족에 대해 ≪주적≫이니 뭐니 하는 망발을 계속 늘어놓고 있는데 대해 분격을 금치 못해하고 있습니다.

민화협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모씨는 ≪주적≫개념을 한사코 고집하고 있는 이회창일당의 행태는 그들이야말로 동족관념에는 참새눈물만큼도 없는 인종무리라는 것을 증명해보여준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은 우리와 한 핏줄을 이은 한 겨레이고 통일조국에서 함께 모여 살아야할 한민족이다. 더욱이 6.15공동선언발표이후 남북관계는 불신과 대결로부터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되어 남북 삼천리에는 그야말로 통일열기로 차넘치고 있다. 이것은 북이 우리와 함께 손잡고 나가야할 한 형제임을 다시금 명백히 보여준다. 그런데 이들이 제거해버려야할 ≪주적≫이라니 도대체 말이나 되는가. 정말 이성을 잃은 자들의 망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회창일당이 ≪주적≫개념을 한사코 고집하고 있는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그것은 미국상전의 의도대로 남북관계를 냉전시대로 돌려세워 이 땅에서 기필코 북침전쟁의 불길을 지피자는 것이다. 이것은 이 땅에서 없애버려야할 ≪주적≫은 미국과 그의 하수인이 되어 민족의 머리위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덮씌우려는 이회창일당임을 보여준다. 외세의 앞잡이가 되어 민족을 해치지 못해 혈안인 이회창일당을 지체없이 제거해버려야 한다.≫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91, 5월 28일

북 ≪테러지원국≫ 지정을 규탄

범민련 남측본부와 범청학련 남측본부가 미국이 이북을 ≪테러지원국≫이라고 모독한 것을 규탄해 23일 각각 성명을 냈습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성명에서 미국의 이런 횡포는 우리 민족의 통일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엄중한 도전행위이며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용납못할 도발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성명은 세상에 둘도 없는 ≪테러국가≫는 바로 미국이라고 낙인찍고 미국이 또다시 한반도에 ≪전쟁테러≫의 불을 지르려고 획책한다면 전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성명은 6.15공동선언이행으로 미국의 전쟁도발책동을 분쇄하고 6.15민족통일대축전성사로 공동선언실현의 전기를 마련하자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미국은 북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당장 철회하고 대북강경정책을 중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범청학련 남측본부도 성명에서 북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철회할 것과 과거 양민학살에 대해 사죄와 배상을 해야한다고 미국에 요구했습니다.

성명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 민중의 거센 항의와 강력한 반미반전반핵투쟁에 부딪혀 비참한 최후를 마칠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91, 5월 28일

미국은 대북강경정책을 포기하라

재일교포신문 ≪민족시보≫ 5월 21일자는 ≪미국은 대북강경정책을 포기하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부시행정부의 대북압살책동은 그칠줄 모르고 있다면서 지난 6일 미국무부 군부통제 및 국제안보담당차관이 ≪≪악의 축≫이후≫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북의 생물무기를 운운한데 대해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미국은 세계 최대의 핵과 미사일, 생물화학무기의 보유국이며 이런 대량살상무기로 세계 각처에서 수많은 인명을 살상해온 장본인이라고 낙인찍었습니다.

신문은 미국이 6.25전쟁때 세균무기를 사용해 양민들을 학살했다면서 저들의 비인간적 행위는 덮어두고 그 무슨 ≪의혹≫과 ≪위협≫을 떠들며 북을 걸고 드는 것은 한반도의 통일을 기어이 막아보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문은 한반도의 긴장상태는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면서 미국은 무력과 압력으로 북을 압살하려는 야망을 버리고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미국이 대북강경정책을 포기하고 테러국가라는 일방적 규정도 철회함으로써 북과의 관계개선의지를 보여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신문은 만일 미국이 계속 군사적 힘을 배경으로 대북강경정책에 매달린다면 미국 자신이 큰 불행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91, 5월 28일

미제의 생화학전은 조선민족멸살을 노린 고의적인 범죄행위(2)

미군학살만행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공동백서(2)

1. 미군의 세균전만행(2)

황해도(당시)에서는 곤충이 발견된것이 36건인데 수안군 수구면 석달리(당시)에서 3월 8일에 콜레라로 2명이 병들어 누웠는데 그중 한 사람은 3월 9일에 죽었다. 이 지역에서 콜레라발병자수는 13명인데 그중 9명이 죽었다.

페스트환자를 처음으로 진단한것은 2월 25일인데 이 환자는 안주군 대니면 발남리(당시)에 사는 29살나는 황리채였으며 2월 29일에는 같은 마을에 사는 26살나는 박순옥이가 이 병에 걸렸다.

조사단이 현장에서 조사확증한 이상의 자료들은 실재한 사실들중 그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피해장소들을 조사단이 다 돌아 볼수 없었기때문이다.

공화국북반부에는 적어도 전쟁전 4년동안에 이러한 전염병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었다.

미군의 이러한 야수적만행은 우리 인민의 끓어 오르는 분노와 적개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인민들의 영웅적투쟁앞에서 세균산포전은 여지 없이 부서 지고 세계인민들의 저주와 규탄을 면치 못하였다.

미군은 우리 인민의 영웅적인 반세균전투쟁에 의하여 저들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게 되자 1952년 4월부터 감염지대를 설정하여 반복오염시키는 방법으로 세균전의 범위를 넓히고 그 효과를 높이려고 더욱더 미쳐 날뛰였다.

미군은 1952년 5월부터 세균전대상을 3개의 방향 즉 공화국북반부를 횡단하는 2개의 오염지대와 서해안지대, 동해안 지대로 설정하고 7일～10일 간격으로 집중적으로 재오염시키기 위한 작전을 대규모적으로 감행하였으며 1952년 11월부터는 선행세균작전의 실패를 만회해 보려고 후방의 중요군사적요충지대와 교통중심지들을 오염시키며 아군의 수송로를 차단해 보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였다.

미군은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9개의 비행련대를 동원하여 신안주주변에 대한 집중적인 세균공격을 기도하면서 매일 대규모적인 폭격과 함께 세균탄을 쏟아 붓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미군의 이 범죄적인 세균전에는 일본 오끼나와에 기지를 둔 폭격기들은 물론 남조선에 기여든 미공군 제3, 제17경폭격기련대, 제4, 제51전투추격기련대, 제8, 제18, 제49, 제58, 제474전투폭격기련대, 해군륙전대 제1공군련대의 ≪B－29≫, ≪B－26≫폭격기들과 ≪F－51≫, ≪F－80≫, ≪F－84≫, ≪F－86≫ 전투폭격기들, 해군륙전대의 야간전투기들 등 공화국북반부지역의 폭격에 동원된 비행기의 4분의 1이 망라되였으며 어떤 날에는 하루에 무려 480대까지 출격하여 세균탄을 떨구었다.

미군이 세균전에 동원시킨 비행기대수들과 실지로 세균탄을 뿌린 지역들을 보면 세계전쟁사에 있어 보지 못한 최대규모의 범죄적인 첫 세균전이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미군은 또한 세균무기를 더욱 광범히 적용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미군은 세균무기 적용수단으로 세균폭탄, 세균산포탕크, 세균포탄, 종이탄(종이를 여러겹 압착하여 만든 폭탄), 원통형의 나무함 등을 리용하였으며 세균폭탄으로서는 500ＬＢ(폰트)(1ＬＢ는 대략 0.454키로그람)폭탄형세균탄, 1,000ＬＢ폭탄형세균탄, 락하산형 세균탄, 기름상자형의 세균탄 등을 사용하였다.

미제공중비적들은 1952년 1월 22일 밤 황해북도 봉산군에 날아 들어 군내 여러 지구에 폭발되지 않은 폭탄을 떨구었는데 여기에서 나온 수천수만마리의 파리, 거미, 진드기 등 곤충들의 전부가 콜레라, 페스트, 파라티브스, 적리균에 감염되여 있었다.

미제공중비적들은 1952년 2월 26일과 28일에는 강원도 련천군에 연막탄과 함께 류탄포를 발사하여 페스트, 콜레라, 티브스에 감염된 세균독충을 산포하였다.

1952년 2월 11일 미제공중비적들은 강원도 철원군에 락하산이 달린 원추형종이탄과 립방형종이탄을 떨구었으며 1952년 3월 26일 평안남도 강동군(당시)에, 3월 5일 함경남도 금야군에, 1952년 2월 27일과 3월 7일에는 평안남도 성천군에, 2월 28일과 3월 5일, 6일, 6월 6일에는 평안남도 중화군(당시), 평양시, 함경남도 금야군, 평안북도 벽동군을 비롯한 여러 지역들에 각종 형태의 종이봉지에 독충을 넣어 떨구는 귀축 같은 만행을 감행하였다.

미제공중비적들은 1952년 3월 7일 자강도 강계시를 비롯한 많은 지역들에 세균에 오염된 쥐, 벼룩, 모기를 비롯한 각종 독충들을 원추형 또는 사각형의 나무함에 넣어 뿌리였다.

미군은 전염성병균을 리용하는데서도 감염경로가 각이하고 감염성과 치사률이 높으며 저항성이 강하고 잠복기가 다른 세균들을 선택하여 세균전만행을 최대한 은페하고 전염속도를 높임으로써 우리 인민에 대한 대량살륙을 기도하였다.

미군이 리용한 세균무기의 종류로서는 악성, 급성, 전염성세균들인 페스트, 콜레라, 천연두, 류행성출혈열을 비롯하여 비타저, 장티브스, 파라티브스(Ａ, Ｂ), 적리, 발진티브스, 살모넬라, 파스투렐라, 물토치다, 콩의 자반병, 식물의 탄저병, 륜문병의 병원체 등 20여종에 달하고 세균에 감염시켜 떨어 뜨린 곤충과 동물들로서는 파리(5종), 모기(3종), 벼룩, 빈대, 쥐를 비롯하여 무려 34종이상에 달하였다.

이처럼 미군의 야수적이고 전면적인 세균전은 공화국북반부의 전 지역을 포괄하는 작전범위와 규모가 방대한 계획적이며 집중적인 세균공세로서 전쟁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 볼수 없는 범죄였으며 세균무기의 적용수단과 방법의 다양성, 악랄성에 있어서 전대미문의 대인간살륙전, 조선민족말살전이였다.

2. 화학무기사용만행

조선전쟁시기 미군의 야수적만행가운데서 가장 범죄적인 죄행의 하나는 화학무기를 사용하여 수많은 인민들을 대량적으로 살륙한것이다.

미제살인마들은 공인된 국제법과 인간의 초보적량심마저 다 줴버리고 가장 야만적인 화학무기를 세균무기사용과 때를 같이하여 사용하는 천추에 용서 못할 범죄를 저질렀다.

미군은 1951년 2월부터 1953년 7월까지의 기간에 우리 나라의 강원도, 황해남북도, 평안남도를 비롯한 공화국북반부의 24개 시, 군과 전선지구들에 수많은 화학무기를 사용하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침략자들의 세균 및 화학무기 피해정형을 현지에서 조사하였던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조사단의 보고서에 의하면 미군비행기는 많은 경우에 질식성 및 기타의 독가스 또는 화학무기들을 사용하였다.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조사단의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 있다.

남포시인민위원회 보건과장이 본 조사단에 제공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1951년 5월 6일 오후 5시 5분부터 6시 30분까지 이 도시는 네차례의 폭격을 당하였다. 이 폭격이 있었을 때 날씨는 좋았고 온도는 23도씨였는데 13개소가 폭격을 받았다. 마지막 공습때 주민들은 모두 대피하였다. 이때 미제침략군 폭격기 ≪B－29≫3대가 당시의 삼화리, 후포리, 축동리, 룡정리, 룡수리의 일부 즉 그 면적으로 보아 0.3평방키로메터 되는 지역을 가스탄으로 폭격하였다. 그 결과 1,379명의 사상자를 내였다. 그중 480명은 질식으로 사망하고 647명은 가스로 중독되였다. 또한 이 공습으로 76명이 피살되고 176명이 부상 당하였다.

본 조사단이 청취한 목격자의 증언과 전문가의 증언 그리고 조사단에 제출된 물질적 및 문서상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증되였다.

가스는 폭탄의 폭발후 즉시로 퍼졌으며 시초에는 검은색으로, 다음에는 황록색으로, 그것이 다시 황색으로 변하였으며 나중에 무색으로 되였다.

이 가스연기는 염소의 냄새와 비슷한 불쾌한 냄새를 냈으며 그 독성은 이 연기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 되였는데 그 시간은 약 2시간이였다.

대피호안에 있던 사람들(그중에 아이들이 많았다)이 중독이 심하였으며 희생자의 증후는 다음과 같았다.

호흡이 곤난하여 지고 음성은 거칠어 졌으며 현기증이 나고 기침을 하고 눈물이 나고 코물이 흐르고 두통이 심하였으며 감각과 맥이 없어 지고 피부가 뜨거워 지고 구토증이 생기고 입에서 거품이 나오고 피를 토하고 열이 나고 피부에 청색반점이 나타났으며 맥박이 약하여 지고 심한 기관지염 등이 생겼다.

혈액검사결과 백혈구와 적혈구가 증가되고 헤모글로빈이 15르로 증가되였다.

검진결과 페의 용량과 중량이 증대되여 륵골의 외면선에 닿았으며 분비물이 섞인 검붉은 액체가 세포조직으로부터 흘러 나왔다.

그리고 신장과 심장에는 혈액결핍의 징조가 보이고 모세관조직의 확대에 의하여 반점이 생기였으며 뇌막은 평평하여 지고 팽창하였으며 해부한 척수골 골수에는 충혈이 있었다.

본 조사단이 남포에 갔을 때 이상의 시체해부결과를 보았으며 가스탄공격을 받은 이 지역의 풀은 황갈색으로, 동합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청록색으로, 은가락지는 흑색으로 변하여 있었다.

1951년 7월 6일 오전 8시에 미국제트기 2대가 원산시 동북방향으로부터 서남방향인 풍포리의 상공을 비행하였다.

그때 기온은 27도씨였으며 가벼운 바람이 서북에서 불었고 공기는 비교적 습기를 띠고 있었으며 공중에는 구름이 없었다.

가스 혹은 어떠한 식별할수 없는 화학물질이 이 마을의 동쪽 약 200메터의 지점에서 100메터－200메터의 지역에 퍼졌다.

농민 안영화와 그의 안해 양춘옥 2명이 밭갈이하러 나가는 도중에 피부에 불이 붙는것 같은 뜨거움을 느꼈고 호흡이 곤난해졌으며 눈물이 나고 눈을 뜰수가 없었다.

조사단은 이 두 피해자가 1951년 7월 6일전까지는 건강하였다는것을 증명하였다.

이 비행기들이 지나간 직후 그들의 신체로출부분(얼굴과 손발)이 근질거리였고 붉은점이 생겨서 그것이 콩알만하게 커지고 그 다음에는 부풀어 올라 그 내부가 화농했다.

이 상처는 어떤 내과병의 증후로써는 올수 없는것이며 2화상과 흡사하나 미란작용이 보다 심하고 회복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렸다.

남자는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입원하지 않을수 없었으며 녀자는 8월 20일까지 퇴원하지 못하였다.

그들이 입원하여 있는 동안 아연화연고를 바르고 난후 피부에 고름 혹은 물이 차기포가 터지고 살가죽이 벗겨 졌다.

그러나 치료후에도 약간의 흔적은 남았다.

이 가스가 퍼진 곳에서는 농작물의 10프로, 특히 콩잎에는 약 1센치의 사이를 두고 둥근 흰점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그 피해자의 신체로출부분에서 발견된 붉은점과 흡사하였다.

목격자들은 폭탄폭발소리도 없었으며 기관총사격도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1951년 9월 1일 당시의 황해도 연백군 연성리와 당시의 장연군 원촌리에 2개의 폭탄이 투하되였다.

이 폭탄은 보통때와 다른 약한 소리를 내고 공중에서 터져서 검은 연기를 내였으며 그 다음에 황록색의 구름이 지면에 퍼졌다. 그로하여 일반주민 4명이 사망되고 40명이 중독되였는데 그 결과는 1951년 5월 6일 남포폭격때에 발생된것과 류사하였다.

나무잎은 떨어 지고 지상의 곡식은 피해를 입었으며 놋그릇은 흑색으로 변했다.

미군의 악랄한 화학무기사용은 1952년도에 들어 서면서 전면적인 세균전과 때를 같이 하여 더욱 강화되였다.

미군은 평화적도시들은 물론 자그마한 농촌마을에까지 화학무기를 사용하였다.

1952년 1월 9일 오후 4시경 원산 북쪽에 있는 학선리마을이 적비행기 2대의 습격을 받았다.

그때 구름은 없었고 기온이 5도씨정도 되였다.

이날 폭격후 83명이 중독되였는데 그 증후는 남포폭격때에 발견된것과 흡사하였다.

그 외에 목이 가려워 지고 입안에 단맞이 생기는것이 다를뿐이였다.

이 사실은 조사단이 질문한 의사와 기타 목격자에 의하여 확인되였으며 또 강원도 인민위원회 보건부 부장이 제공한 자료와 원산중앙병원(당시)의 여러 의사들의 보고에 의하여 확증되였다.

(내일 계속)

주체91(2002)년 5월 25일
평 양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2)

김정일장군님 - 주체86(1997)년 6월 19일

1.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 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 수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이다.(2)

우리 당과 인민은 사회주의나라뿐 아니라 자주성을 지향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호혜에 기초한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투쟁을 벌여 전 세계 진보적 역량의 국제적 연대성을 강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자기운명의 주인이 되어 혁명의 길을 독창적으로 개척하고 자주성에 기초한 세계사회주의운동과 진보적 운동의 단결과 연대성의 새역사를 펼쳐 놓은 우리의 투쟁성과와 경험은 주체성을 견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운동의 승리의 중요한 담보로 되며 민족적 임무와 함께 국제적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우리 당은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고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적 전통을 적극 살렸으며 그것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구현하였다. 역사적으로 형성된 민족성은 시대적, 계급적 제한성을 가질 수 있으나 민족성을 복고주의 부르조아민족주의의 온상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민족성에는 민족자주정신과 민족문화전통이 체현되어 있으며 그것은 나라와 민족의 귀중한 재부로 사회주의건설의 중요한 밑천으로 된다. 우리 당은 슬기롭고 용감하며 불의를 미워하고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며 도덕의리를 귀중히 여기는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성을 적극 살리고 끊임없이 발전시켰으며 그것이 사회주의건설을 추진시키고 나라의 부강발전을 이룩해 나가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게 하였다. 민족성을 살리고 발전시켜 나가는 우리 당의 정책은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당에 대한 인민대중의 신뢰를 높이고 사회주의를 인민대중 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 데서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였다.

우리 당은 민족성을 민족적 단결의 중요한 기초로 삼았다. 자기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는 것은 민족성원들의 공통된 심리이며 그것은 온 민족을 단합시키고 결속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조선의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은 혁명투쟁의 첫 시기부터 민족성을 중시하고 민족성에 기초한 각계각층의 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으며 이 과정에 민족주의자들과의 단합도 성과적으로 실현하였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민족 내부에 반목과 불화의 쐐기를 박으려고 공산주의와 민족주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심연이 있는 것처럼 떠벌이지만 공산주의와 민족주의는 애국애족이라는 공통된 요구와 지향을 가지고 있다. 민족주의에 제한성이 있다고 하여 그 진보적 측면을 무시하고 배척하면 민족적 단합을 이룩할 수 없다. 공산주의와 대립되는 것은 민족주의 일반이 아니라 민족주의의 너울을 쓰고 민족공동의 이익을 소수 착취계급의 이익에 종속시키는 부르조아민족주의이며 민족이기주의, 민족배타주의이다. 우리는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는 공통성을 기본으로 내세워 민족주의자들과의 단결과 합작을 주동적으로 실현하였으며 그들이 끝까지 애국애족의 길로 나아가도록 꾸준히 이끌어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공산주의자들과 운명을 같이 하면서 커다란 기여를 하도록 하였다.

외세에 의하여 민족이 갈라지고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의 기초로 될 수 있는 것은 민족성과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민족애 민족자주정신이다. 더욱이 외세와 반동들의 책동으로 남조선에서 민족성이 짓밟히고 사멸되어 가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가 민족성을 적극 내세우고 살려나가지 않는다면 전 민족의 단결과 조국통일의 기초를 잃게 되고 민족이 이질화되어 서로 다른 민족으로 갈라질 수 있다.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이신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비롯하여 우리 당의 모든 조국통일방침들은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고 살려나가는 숭고한 민족자주정신과 민족애로 일관되어 있다. 우리 당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이끌어 나가는 데서 민족성을 살리고 구현하는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림으로써 북과 남 해외의 전 민족을 하나로 단합시키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조건들을 성숙시켜 나갔다.

민족성을 고수하고 구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를 내세운 것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의 주체인 인민대중이 조선민족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민족의 넋과 정기를 빛내어 나가도록 하는 것을 민족성을 살려나가기 위한 투쟁의 기본고리로 보고 여기에 커다란 힘을 넣었다. 우리 당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성을 전면적으로 개화발전시키고 혁명과 건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민족적 우수성을 훌륭히 창조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조선민족제일주의를 내세우고 그것으로 인민들을 무장시켰다.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의 확립은 민족성을 살리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왔으며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민족성의 역할을 비상히 높이게 하였다. 온 나라의 남녀노소가 노래 ≪내 나라 제일로 좋아≫를 즐겨 부르는 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민은 누구나 조선민족으로 태어난 것을 더 없는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위대한 당의 영도를 받으며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서 살며 일하는 우리 민족이 제일이라는 높은 자존심과 자부심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발전과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민족의 존엄과 슬기를 떨치고 있다.

민족성을 살리기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경험은 노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고 혁명과 건설에서 그것을 구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민족의 모든 성원들을 묶어 세우고 그들의 애국적 열의를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 발전과 번영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기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영도하심으로써 자주성의 기치 밑에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 나가는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역사는 수많은 애국자들과 애국적인 투쟁을 기록하고 있지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같이 자주의 신념과 숭고한 애국심을 지니고 준엄한 혁명의 길을 헤치면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견결히 지켜 온 공산주의혁명가를 알지 못하고 있으며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영도하여 오신 주체혁명위업과 같은 참다운 민족자주의 혁명위업도 알지 못하고 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 수행에서 독창적인 길을 열어놓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영도의 빛나는 결실은 주체의 사회주의이다. 우리 인민의 의사와 민족적 특성에 맞게 우리 인민 자신이 건설한 우리의 주체의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 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이며 주체성이 강하고 민족성이 높이 발양되는 자주자립자위의 사회주의, 애국애족의 사회주의라는 데 그 본질적 특성과 우월성이 있다. 인민에 대한 사랑과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가장 훌륭히 결합시키고 있는 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불패의 생활력과 위력을 지니고 승리의 한 길을 걷고 있으며 인류의 자주위업 수행에서 더욱더 커다란 견인력을 발휘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도 밑에 우리 당과 인민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며 민족의 자주적 발전과 융성번영을 담보하는 주체의 사회주의를 건설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노동계급적 원칙과 함께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하며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키는 것이 승리와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확증하였다. 대국주의자들, 기회주의자들은 우리가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혁명

우리 당은 민족성을 민족적 단결의 중요한 기초로 삼았다. 자기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는 것은 민족성원들의 공통된 심리이며 그것은 온 민족을 단합시키고 결속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과 건설을 해 나가는 것은 사회주의에 배치되는 것처럼 비방하였지만 결국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키고 빛내어 나가는 것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이다. 우리의 사회주의가 세계적인 정치파동에도 끄떡하지 않고 자기궤도를 따라 줄기차게 전진해 나가고 있는 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주체적 입장에서 혁명과 건설을 이끌어 나가기 때문이다. 한때 정통 사회주의자, 국제주의자로 자처하던 자들은 사회주의를 버리고 국제주의를 배반하였지만 우리 당과 인민은 변함없이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국제주의에 끝없이 충실하였으며 오늘 사회주의의 보루를 철옹성같이 지키면서 자주성과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모든 혁명적 당들 진보적 인민들과 힘을 합쳐 사회주의운동의 재건과 인류의 자주위업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다.

2.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구현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 조국의 통일과 부강발전을 이룩해 나가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이며 의지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필생의 뜻이였고 역사에 의하여 그 진리성과 정당성이 확증된 이 노선을 더욱 철저히 관철해 나가야 한다.

애국애족의 입장을 지키는 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견지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혁명하는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끝없이 사랑하고 귀중히 여겨야 한다.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는 누구도 살아갈 수 없으며 운명을 개척할 수 없다. 개인의 운명과 민족의 운명이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은 모든 사회성원들이 올바른 민족관을 가지도록 교양 하는 데 힘을 넣고 있으며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과 같은 문학예술작품들도 품을 들여 만들고 있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기본사상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자 개인의 운명이며 민족의 생명 속에 개인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다. 자기의 운명을 참답게 개척하려는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삶의 터전으로 행복의 보금자리로 여기고 열렬히 사랑하여야 하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독립과 부강번영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데서 인생의 보람과 가치를 찾아야 한다. 사람들이 자기계급을 어떻게 대하며 계급의 한 성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되지만 그보다 못지 않게 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오늘 조선사람에게 있어서는 민족의 분열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형성된 제도상 차이나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여 모두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조선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참답게 살며 민족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자기를 바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선민족의 피와 넋을 지닌 사람이라면 어떤 사회제도하에서 어느 계급과 계층에 속해 있건, 국내에서 살건 해외에서 살건 모두가 자신의 운명을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결합시키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민족의 융성번영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혁명을 이끌어 가는 당이 나라와 민족을 귀중히 여기고 그 운명을 책임지는 입장에 서는 것은 자기의 영도적 사명을 다 하기 위한 근본조건으로 된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고수하는 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나서는 선차적 요구이다. 노동계급의 당이 계급적 이념과 요구만을 절대화하고 민족적 이익을 홀시하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책임질 수 없고 애국애족의 투쟁을 옳게 영도할 수 없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성도 바로 실현해 나갈 수 없다. 혁명과 건설을 영도하는 당은 모든 사고와 활동에서 언제나 나라와 민족을 중시하는 입장을 견지하여 하며 인민대중을 옳게 이끌어 나라와 민족의 이익을 견결히 수호하고 조국의 부강발전과 민족의 번영을 이룩해 나가야 한다. 우리 당과 인민은 자주, 독립, 사회주의를 위한 장구한 혁명투쟁의 길에서 애국애족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한 긍지 높은 당이며 인민이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조국의 광복과 자주적 발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운 가장 열렬한 애국자들이였으며 조선혁명이 개척되고 전진하여 온 전 역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우리 인민의 성스러운 투쟁으로 일관되어 있다. 우리 인민의 애국애족의 자랑찬 전통은 오늘 우리 당의 영도 밑에 빛나게 계승발전되고 있다. 전체 우리 인민은 애국애족의 숭고한 전통을 계승하여 나라와 민족의 근본이익을 수호하며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한 우리 당의 노선과 정책을 헌신적으로 관철해 나가야 한다.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을 자기식으로 하는 것은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해 나가기 위한 기본요구이다. 자기나라와 민족의 운명 개척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자신이 결심하고 처리하는 것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자주적 권리이다. 혁명하는 당과 인민은 외세의 간섭과 압력을 단호히 배격하고 독자적인 결심과 판단에 따라 자기 문제를 자신의 요구와 이익에 맞게 결정하여야 한다. 외세에 눌리워 자기의 주견과 신념을 내세우지 못하는 것은 곧 예속의 길이며 망국의 길이다. 제국주의자들과 지배주의자들의 의사를 따르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살아가던 나라와 민족들이 처한 파국적 운명은 이것을 확증하여 준다. 혁명하는 당과 인민은 제국주의자들과 지배주의자들의 압력이 클수록 자기의 주견을 더욱 확고히 내세워야 하며 자신이 결정한 노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해 나가야 한다. 외세의 압력에 굴복하고 난관 앞에서 동요하거나 주저앉아 자기의 신념과 자신이 택한 길에서 물러서게 되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된다. 혁명하는 당과 인민은 아무리 엄혹한 난관과 시련에 부닥쳐도 자기 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신념을 잃지 말아야 하며 견인불발의 의지와 투쟁으로 자기가 택한 길 자주의 길로 변함없이 걸어나가야 한다.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키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서 언제나 자기 식의 방법과 방도를 찾고 그에 의거해야 한다. 남의 식을 좋아하고 그것을 본따는 것은 민족의 운명을 책임진 주인다운 태도가 아니다. 남의 것 가운데서 좋은 것 앞선 것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것을 기계적으로 모방하거나 기본으로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당과 인민은 국가사회제도를 관리하고 사회생활을 조직하는 데서 자본주의적인 서방식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이고 민족적인 자기 식을 구현하여야 한다. 사회경제적 난관이나 민족분쟁의 재난을 겪고 있는 나라들도 그 극복방도를 자체로 찾아야 하며 제국주의자들의 처방에 기대를 걸지 말아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이 세계 도처를 돌아치면서 내흔들고 있는 그 무슨 처방이라는 것들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발전을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들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족적 화해를 도모할 수 있는 묘안도 아니며 저들을 분칠하고 어부지리를 얻기 위한 것이다. 현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제국주의자들의 처방을 받아들인 데서는 사회경제적 난관이 더 심각해지고 민족분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사회경제적 난관이나 민족분쟁을 겪고 있는 나라들은 병집을 더욱 악화시키는 제국주의자들의 처방을 배격하고 자기식의 처방으로 난관을 뚫고 나가야 한다. 우리 당과 인민은 자기의 신념에 따라 혁명의 길을 자주적으로 선택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독자적인 주견을 가지고 우리 식대로 풀어나가면서 혁명위업을 전진시켜 온 데 대하여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우리 식에는 인간중심의 주체철학이 있고 애국애족의 넋이 깃들어 있다. 우리는 남의 의사와 처방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주견과 자기식의 혁명방식을 확고히 견지하였기 때문에 위력한 주체의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빛내어 올 수 있었다. 우리는 앞으로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우리 식대로 살고 혁명을 해 나감으로써 우리의 사회주의를 확고히 고수하고 전진시키며 나라와 민족의 끊임없는 부강번영을 이룩해 나가야 한다.

(내일 계속)

3권 제9장

제1차 북만원정

1. 조선인민혁명군
2. 부자와 가난뱅이
3. 노야령을 넘어서
4. 영안땅에 모인 하모니카 소리
5. 천교령의 눈보라
6. 인민의 품

1. 부자와 가난뱅이(1)

유격근거지가 우리의 집이고 보금자리인 것은 틀림없었으나 나는 사실상 거기에만 있은 것은 아니였다.

군대가 울타리 속에만 갇혀 있는 것은 전술상으로 자멸을 가져오는 길이였다.

인민들이 주는 밥을 축내면서 소왕청골 안을 빈둥빈둥 돌아다니는 것은 우리의 배짱에도 맞지 않았다. 멀쩡한 자기 편 사람들을 ≪민생단≫으로 몰아 죽이는 좌경분자들과 민족배타주의자들의 처사도 혐오감을 자아냈다.

나는 짬만 있으면 군대를 데리고 적구로 나갔다. 반유격구를 꾸려놓은 다음에는 더 자주 나가 돌아다녔다.

군대가 적구로 나가는 데 대해서는 인민들도 좋아하였다. 적구활동을 해야 쌀도 생기고 천도 생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였다. 적들이 아무리 공산주의가 나쁘다고 선전하여도 우리가 하룻밤 자고 가면 다 허사가 되였다. 인민들은 적들이 내돌리는 소문보다도 우리의 도덕과 례절에 체현된 공산주의자의 실상을 더 중시하였다.

장룡산

적구생활에 재미를 본 다음부터는 대원들이 모두 나를 따라다니겠다고 하였다.

내가 데리고 다니던 부대는 5중대였다. 너무 많이 데리고 다니면 먹는 문제도 곤란하고 흔적도 많이 생길 수 있으므로 50～60명만 데리고 다녔다. 병력이 많이 요구될 때에는 1중대까지 불러오곤 하였다. 내가 적구에 나와서 계속 돌아다니는 바람에 2중대를 책임진 최춘국과 3중대의 장룡산이 왕청을 지키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였다. 요영구방위를 담당한 것은 4중대였다.

5중대는 왕청치고도 싸움을 제일 잘하는 정예부대였다. 3보 간격으로 걸으라고 하면 3보 간격으로 걷고 숨소리를 내지 말라고 하면 숨소리를 내지 않았다. 큰 전투는 별로 하지 않고 제낄 만한 것만 골라 답새겨 버리고서는 하룻밤 사이에 20리, 50리씩 벼락같이 자취를 감추곤 하였다.

우리의 적구교란전은 적들로 하여금 유격근거지 ≪토벌≫에 전력을 다 할 수 없게 하였다.

해방 후 당선전사업을 맡아보던 일부 사람들은 항일전쟁 당시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창조한 적후투쟁 경험 같은 것은 전혀 소개하지 않았다. 그 대신 다른 나라의 전통이나 경험만 선전하였다. 이런 사람들이 부식시킨 사대주의 병이 얼마나 지독했던지 해방 직후 우리 사람들은 스탈린 그라드격전이나 꾸르스크탱크정에 대한 말은 많이 하면서도 우리 나라의 항일전쟁사에 소왕청방위전과 같은 가열한 전투가 있었다는 사실은 알지조차 못하고 있었다. 한때는 이수복 영웅을 가리켜 ≪조선의 마트로소프≫라고도 하였다. 조국해방전쟁 당시까지만 하여도 우리 인민들은 세계에서 맨 처음으로 화구를 막은 영웅이 쏘련의 마트로소프라고만 생각하였지 자기 나라의 항일선열들 중에 그보다 먼저 화구를 막은 김진이란 투사가 있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우리가 해방 직후 혁명전통 교양만 잘하여도 후퇴시기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을 것이다. 5～6명씩, 15～20명씩 소부대를 조직해가지고 도끼나 하나씩 차고 쌀이나 한두 말씩 걸어메고 이산 저산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총이나 몇 방씩 갈기고 삐라나 몇 장씩 붙이고 산에 들어가면 한두 달쯤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는데 우리가 사전에 이런 교양을 많이 못하다 보니 입지 않을 피해도 더 입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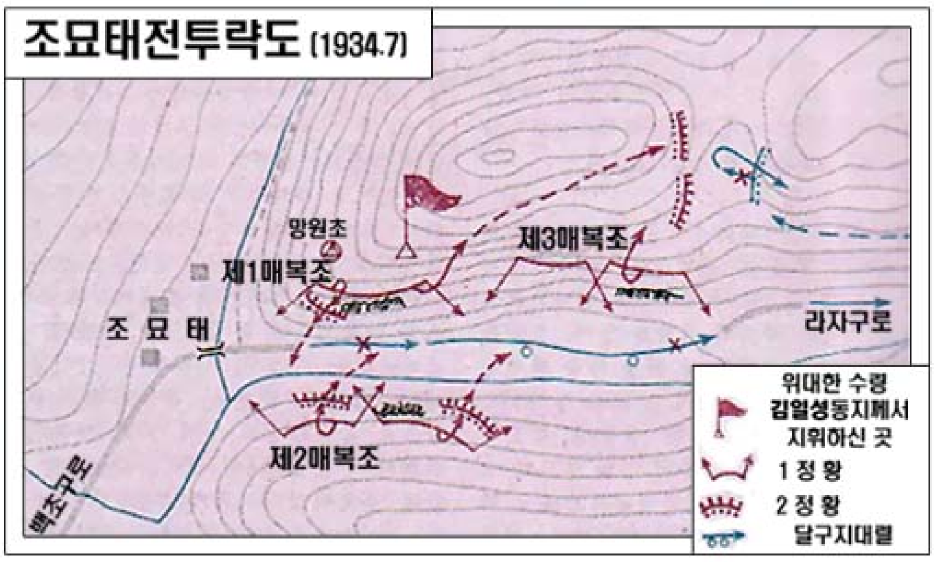
내가 적구활동을 제일 많이 하며 돌아다닌 곳은 두만강 연안의 농촌 부락들이였다. 어느 해인가 기차를 타고 두만강 유역을 자나가면서 건너다보니 옛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산과 골짜기들을 알아볼 수 있었다.

등하불명이라는 말도 있지만 적의 코밑에 바싹 붙어 있는 것이 나쁘지 않았다. 우리 부대는 심지어 도문 뒷산에까지 나와 있었다. 거기에 와서는 모두 사복을 입고 지냈다. 세 봉우리에 보초를 각각 한 명씩 세우고는 수림속에 들어앉아 잠도 자고 책도 보면서 여유작작한 생활을 하였다. 그래도 적들은 자기네 코앞에 유격대가 와 있는 것을 몰랐다.

우리가 두만강 연안의 도문과 양수천자 일대에 나와서 적구활동을 한 것은 1933년과 1934년 두 해 여름이였다. 오의성과의 담판을 치르고 왕청에 돌아와 양수천자 부근에서 군중정치공작을 할 때 나는 지휘부가 있을 만한 곳을 물색하기 위하여 도문지방에 대원들도 파견하고 그 고장 토착민들과 담화도 해보았다. 그들은 대체로 송동산, 북고려령, 초모정자 세 지점을 이상적인 후보지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지점들은 지휘부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서는 좋은 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의 진출목적을 실현하는 데서는 적합하지 않은 고장들이였다.

나는 어째서인지 전에 온성으로 드나들 때 평양의 모란봉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 자꾸만 돌아보던 도문 뒷산으로 마음이 끌렸다. 지도를 꺼내놓고 보니 우리의 진출목적에도 딱 들어맞는 곳이였다.

골짜기가 여러 갈래이고 숲이 우거져서 여름 한철 초막이나 치고 지내기에는 아주 좋은 곳이였다. 이 산 주변에는 1930년 이후부터 우리의 조직이 들어가 박힌 개간지도 많았지만 아직 보습을 대보지 못한 처녀지도 많았다. 우리는 그 처녀지들을 다 혁명촌으로 만들 작정이였다.



나는 원래 라자구 전투가 끝난 다음 인차 도문 뒷산으로 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반일부대의 피복과 식량을 해결하느라고 예정되였던 출발날짜를 지키지 못하고 소왕청에서 얼마 동안 지체하였다. 초복이 다된 때였지만 청산 부대 장병들은 헐어빠진 솜동복을 입고 있었고 식량이 거덜나서 참새알만한 감자알을 파먹고 있었다.

그 바람에 부대주둔지 주변의 감자밭들이 결딴났다. 밭 주인들은 청산 부대를 원망하였다.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니 자연히 상하관계도 나빠지고 부대는 토비화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일부는 투항하려는 기미까지 보였다. 코산부대나 사충항부대의 실태도 이와 비슷하였다. 코산부대가 아직 조선인민혁명군에 편입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다.

우리는 청산부대와 함께 가야허를 치고 해결한 식량과 천들을 반일 부대들에 나누어준 다음 조묘태의 적까지 치고 나서 도문 뒷산으로 향하였다. 라자구에서 창자가 쏟아져나오는 치명상을 당한 후 유격구병원에 호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던 한흥권중대장이 무슨 오그랑수로 병원을 탈출하였는지 아무도 모르게 슬금슬금 중대를 따라오다가 도문 뒷산에 도착하자마자 내 앞에 불쑥 나타났다.

한 달 전에 총상으로 밸까지 나왔던 사람이였는데 수술자리를 보니 어느새 다 아물어 있었다. 다만 봉합사를 뽑은 자리에 핏기가 좀 남아 있을 뿐이였다. 실로 꿰맸던 자리가 터질 것 같아서 병원으로 되돌아가라고 하자 이 억대우 같은 중대장은 울상이 되어 자기를 보내지 말아 달라고 애걸하였다. 나는 중대장 대리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왕동무에게 지시하여 도문 뒷산에서라도 휴식을 잘 시켜 수술자리가 말썽을 부리지 않게 하라고 하였다.

도문은 본래 회막동이라고 부르던 고장이다. 회막동이란 지명은 조선 사람들이 옛날 막을 짓고 석회구이를 한 동네라는 데로부터 유래된 것이였다. 이 주변은 모두 석회석산이였다고 한다.

9.18사변 후 만주를 강점한 일제는 길회선철도를 조양

천에서 회막동까지 연장하고 그 역이름을 도문이라고 하였다. 역 근처의 마을들에 집들을 지어 시가를 만들고 영사관분관, 경찰서, 세관을 설치한 다음 수비대까지 끌어들여 석회와 함께 살아온 시골을 군경들의 성화에 시달리는 번잡한 소비도시로 만들어버렸다. 이 신시가의 이름은 도문으로 되고 서쪽 산 밑의 낡은 마을은 구시가로 되었는데 그 시가의 이름은 조선사람들이 부르던 그대로의 회막동이였다. 도문과 남양 사이에는 미구에 국경철도가 놓였다. 그때부터 도문은 만주대륙에서 일본의 이권을 지키는 동쪽 관문이 되었다.

대안의 남양도 조선과 만주를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였다.

930년대 후반에는 이 지구에서 쏘련침략을 위한 첩보모략기구들이 둥지를 틀었다. 이처럼 도문은 군사정치적으로 중시되는 곳이였다.

도문이 우리의 활동거점으로 되고 국내 반유격구와의 연계를 지어주는 중요한 통로로 이용된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유익한 일이였다.

우리는 일찍부터 회막동에 조직을 박았다. 이 조직은 오중성이네 영향하에 있었다. 나는 1930년 9월에 온성으로 넘어갈 때에도 회막동 동무들의 도움을 받았고 그 이듬해 5월에 종성으로 건너갈 때에도 그들의 전송을 받았다. 최금숙이 병중에 있는 내 입맛을 돋우려고 사과, 배를 구하러 왔을 때 그를 도와준 것도 바로 이 회막동조직이였다.

도문은 온성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중계소와도 같은 고장으로서 유격대의 후방물자 공급기지라고도 할 수 있었다.

우리는 도문 뒷산에 체류하는 기간 활동의 총적 목표를 적들이 시정 방침으로 내세운 ≪비민분리≫의 책동을 파탄시키는 데 두었다. ≪비민분리≫란 그네들이 소위 ≪공비≫라고 부르는 혁명군과 인민을 갈라놓는다는 뜻이다. 일제는 이것을 하나의 정책으로 선포하고 사상공작이니, 집단부락정책이니, 십가연좌법이니, 오가작통법이니. 귀순공작이니 하는 것들을 연방 고안해내 군대와 인민을 연결시켜주는 혈맥을 끊어버리려고 발악하였다.

≪비민분리≫의 폭정 밑에서 조직들은 무데기로 파괴되고 민심마저 소란해졌다. 어떤 사람들은 귀순신청서에 도장을 찍기까지 하였다. 이런 현상이 제일 혹심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두만강 유역의 왕청남단이였다.

우리는 적의 분리주의를 군민단합주의로 타파하자는 구호를 내걸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군중들 속에 들어가 조직공작에 착수하였다. 오중흡이 살던 남양촌조직도 그때 복구해주었다. 대립자에는 최씨들을 핵심으로 하는 조직들을 새로 내왔다. 주변 마을들에서 조직공작을 끝낸 다음에는 점차 양수천자 방향으로 군중사업 무대를 옮겨 임업노동자들과 농민들 속에 침투하였다. 언제인가는 한개 소조를 데리고 솔골을 거쳐 훈춘현 밀가의 웅기동이라는 곳까지 가서 두만강 건너편에 있는 경원(새별), 훈융 쪽의 조직도 수습하였다. 이런 과정에 ≪비민분리≫에 울고 있던 인민들을 군민화합으로 웃게 하였다.

도문 뒷산으로 들락날락하던 시기에 나는 국내 여러 지역에 꾸려진 기층당조직들과 혁명조직들에 대한 조직지도 체계를 정연하게 세우며 당조직 건설사업을 국내 깊이에로 확대하기 위하여 육읍 일대에 자주 나왔다.

1930년 10월 온성군 두루봉에서 당조직이 결성된 후 두만강 연안 일대에는 당 지도핵심들인 오중화, 김일환, 채수항, 오빈 등과 정치공작원들이였던 이봉수, 안길, 장금진 등에 의하여 수많은 기층당조직들이 꾸려졌다. 회령, 연사, 웅기(선봉), 무산, 경원(새별), 나진, 부령, 청진 신암동 등지에 수많은 기층당조직들이 생겨났다.

1933년 8월에는 경원(새별) 박석골에서 지하당사업과 관련한 강습을 진행하였다. 박석골 숯구이막에서 조금 떨어진 나무 밑에서 2일간 진행한 강습에는 북부조선 일대를 비롯하여 국내에서 활동하는 정치공작원들과 지하혁명조직 책임자들이 참가하였는데 지하당조직 건설과 관련된 문제는 내가 강의하고 공청사업과 관련된 문제는 조동욱이, 부녀사업과 관련된 문제는 박현숙이, 아동사업과 관련된 문제는 박길송이 각각 맡아서 강의하였다.

우리의 지도 밑에 온성에서 국내 당조직 및 혁명조직 대표들의 회의가 진행된 것도 바로 이 무렵이였다. 1934년 2월 지금의 온성군 풍인노동자구에 있는 진명서숙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국내의 넓은 지역에 당조직을 확대

진명서숙

국내당조직건설 사업과 관련한 당시 신문자료

하여 당조직지도체계를 세울 데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토의하고 지구당위원회와 같은 지역적 지도기관을 내오도록 하였다.

이 회의 결의에 따라 전장원을 책임자로 하는 온성지구 당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이 회의는 1930년대 전반기 국내당조직건설사업을 확대하는 데서 전환적인 사명을 수행한 중요한 회의였다.

당시 ≪조선일보≫가 ≪진명서당의 당대회에서 과격한 슬로건 수항목을 결의하여 인쇄배부≫했다고 쓴 것은 이 회의의 일단을 보여준 것이였다.

도문 뒷산에서의 적구활동은 흥미 있는 일화들도 많이 남겼다.

그 많은 일화들 중에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어떤 심보 나쁜 지주의 뽕을 빼던 일이다. 그 지주가 살던 마을 이름이 무엇이였던지 그것은 잘 기억나지 않는데 조선사람 동네였던 것만은 틀림없다.

어느날 나는 대원들을 도문 뒷산에서 쉬게 하고 사복차림으로 그 지주가 사는 동네에 내려갔다. 그때의 사복차림이란 양장이 아니라 조선바지 저고리 차림이다. 우리는 배낭 속에 늘 사복을 넣어가지고 다녔다. 사복을 입지 않고서는 적구공작을 할 수 없었다. 일본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일본옷을 지니고 다녔다.

그날 나와 동행한 사람은 전령병 이성림과 그밖의 대원 2명이었다.

늦은 오후여서 해질녘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았다. 나는 우리가 손을 한 번도 대보지 못한 그 마을의 민심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며칠을 두고 산에만 배겨 있자니 한편으로는 갑갑증도 났다. 이 마을 인심이 좋으면 신세도 지고 조직도 박을 작정이었다. 마을에는 일본군경들도 없었다.

나는 이 부락에서 덩지가 제일 크고 번듯하게 생긴 기와집 대문 앞에 가서 주인을 찾았다. 해가 두발이나 되는 청천백일이었으나 주인들은 웬일인지 안으로 문을 걸어놓고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우리가 문고리를 잡고 대문을 왈가당 왈가당 흔들어대서야 신발을 끌며 게으름스럽게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중년 나이의 사나이가 대문을 열어 언짢은 눈길로 우리를 쳐다보았다. 그가 바로 우리가 뽕을 뺐다는 지주였다.

≪주인님, 우리는 지나가던 나그네입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갈 곳도 없어 하룻밤 자고 가려고 주인을 찾았는데 신세를 좀 질 수 없겠습니까?≫

나는 예절을 차려 깍듯이 찾아온 사유를 말했다.

주인은 정신빠진 놈들이라고 하면서 다짜고짜 욕지거리부터 앞세웠다. 도덕도 없는 심통이 사나운 지주였다.

≪아니, 여기서 한 5리 가면 여관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여염가에 찾아오는 게야, 여기가 뭐 동네집 방앗간인 줄 알아?≫

눈알을 굴리며 욕지거리부터 퍼붓는 본새가 이만저만 고약하지 않았다. 상대가 두 마디 안팎에 우리를 미친놈들이라고 하면서 지나가는 거렁뱅이처럼 박대하기 때문에 나는 슬그머니 부아가 동하였다. 그렇지만 꾹 참고 태연하게 또 말을 꺼냈다.

≪주인님, 이거 다리도 아프고 발도 부르트고 해서 더 걷지 못하겠는데 어떻게든지 하룻밤만 자고 가게 해주십시오.≫

지주는 입에 거품을 물고 벌컥 짜증을 냈다.

≪아니, 여관이 멀지 않다는데 왜 거머리처럼 자꾸 달라붙는 거야? 초하룻날 장에도 보이지 않던 것들이….≫

그러자 내 뒤에 섰던 전령병이 나를 대신하여 간청하였다.

≪주인님, 여관집에 들고 싶어도 돈이 없습니다. 마음을 곱게 쓰면 북두칠성도 굽어본다는데 한턱 내는 셈치고….≫

전령병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지주는 ≪그럼 우리보구 돈을 내란 말이야. 쥐똥같은 소리!≫하면서 침을 탁 뱉았다. 그리고는 왈카닥 대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가버리고 말았다.

혁명을 10년 가까이 해오는 동안 나는 그런 대접을 처음 받아보았다. 우리가 지하활동을 하느라고 많이 다니던 중부만주지방에도 부자들이 많았지만 이 지주와 같이 야박하게 구는 사람들은 없었다.

전령병 이성림은 분을 참지 못하고 풀럭풀럭하였다. 자기네 대장이 사람 같지 않은 촌지주한테서 그런 괄시를 당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모양이었다. 그는 분한 나머지 저따위 돼지보다 못한 인간들은 살 자격조차 없으니 쏘아 제끼자고 하였다. 쏘아 제끼지 못하면 그놈의 귓구멍에 대고 공포라도 한 방 놓아 기절해 자빠지게 하자고 하였다.

나도 역시 전령병처럼 분노를 다잡을 수 없었다. 이방에서는 동족들끼리 더 친밀해지는 법이다. 고국에서 살 때 개와 고양이처럼 지내던 사람들도 이국에서 만나면 서로 손을 잡고 정을 나누는 것이 인간의 본도이다. 하지만 우리를 정신빠진 놈들이라고 모욕한 그 지주한테는 도대체 인정이라는 것이 개알만치도 없었다.

나라가 망했다고 인정마저 더러워질 수야 없지 않는가. 같은 불행을 당한 사람들끼리는 서로 동정하는 것이 인생이치라고 우리 조상들은 동병상련이라는 성구까지 만들어냈다.

조선민족만큼 정에 잘 웃고 잘 우는 그런 민족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는가. 그러기에 옛사람들도 귀신은 경에 막히고 사람은 인정에 막힌다고 하지 않았던가.

(내일 계속)

≪김정일동지는 온 인류가 흠모하여 마지않는 수령≫

러시아 빨레야출판사 편집일군 왹또르 싸하로브가 ≪**김정일**동지는 온 인류가 흠모하여 마지않는 수령≫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였다.

글은 다음과 같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한 세대에 끝나지 않는 역사적 위업이다. 이 역사적 위업수행행정에는 반드시 세대교체가 있게 된다.

이것은 사회역사적 운동의 필연적 법칙이다.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자본주의가 복귀된 동유럽나라들에서는 참으로 쓰라린 사회적 비극을 찾아보게 된다.

우리의 전취물이, 히틀러 군대의 발광적인 침략과 서방열강들의 끊임없는 압력으로부터 지켜온 모든 것이 단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다. 경제적 및 문화적 침체, 실업, 빈궁, 범죄, 민족간 분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전 소련과 동유럽나라들의 쓰라린 교훈은 영도의 계승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사회주의 위업수행에서 사활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수령의 위업계승문제가 성과적으로 해결되었다.

국제공산주의 운동내에 현대수정주의가 머리를 쳐들던 그 시기에 벌써 **김일성**주석께서는 영도의 계승문제에 신중한 주의를 돌리시였다.

경애하는 주석께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당의 조직 사상적 기초를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보시였다.

왜냐하면 당의 영도계승문제가 심각히 제기되는 때에는 내외의 원수들과 출세주의자들이 권력을 자기 손에 틀어쥐려고 하기 때문이다.

당내에 혁명적 원칙이 지배하고 굳게 뭉쳐졌다면 당의 영도권은 혁명의 배신자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며 기회주의적 노선이 당 조직들에 강요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경애하는 주석께서는 당의 조직 사상적 기초의 핵을 이루는 간부대열을 믿음직하게 꾸리며 그들에 대한 사상교양을 강화하는 것을 특히 중요한 문제로 보시였다.

그것은 만일 간부들이 사상적으로 부식되면 그들이 혁명과 반혁명을 갈라볼 수 없다는 것과 관련된다.

위대한 수령의 현명한 영도에 의하여 조선노동당은 자기 대열에 부르주아자유주의, 기회주의적 요소들이 외부로부터 침습하는 것을 방지하였으며 자기 활동에서 혁명적 원칙을 고수하고 혁명의 배신자들의 음모책동을 쳐물리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조선노동당은 당원들과 인민대중 속에 수령의 역할에 대하여 옳은 견해를 가지도록 사상교양을 강화하였다.

마르크스-레닌주의는 탁월한 수령을 개인으로 봄으로써 혁명의 배신자들이 개인숭배라는 구실 밑에 수령을 헐뜯을 수 있는 사상적 공간을 주고 있다.

주체의 이론은 수령을 개인이 아니라 수령, 당, 대중으로 이루어지는 혁명의 주체, 사회 정치적 유기체의 최고뇌수로 보며 수령은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본다.

서방세계는 수령과 인민대중사이의 이와 같은 신뢰와 존경의 혈연적 관계를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조선인민의 일심단결은 바로 이러한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

이것은 논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조선의 현실은 수령, 당, 대중사이의 신뢰와 존경의 관계의 위대한 생활력을 확증하여 주고 있다.

오늘 국제사회가 수령에 대한 조선인민의 고유한 견해에 관심을 돌리고 있는 것은 응당한 일이다.

혁명의 근본이익에 맞게 영도의 계승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관건적 문제는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계승하고 완성할 수 있는 탁월한 영도자를 내세우는 것이다.

수령의 위업계승은 권력을 넘겨주는 순수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영도의 계승자, 정치의 계승자의 출현을 요구한다.

복잡다단한 현대 조선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김일성**주석의 영향을 받으시며 성장하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벌써 학창시절에 많은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내며 탁월한 사상이론가로서의 특출한 자질을 발휘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의 교육의 최고전당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시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탁월한 정치가로서의 능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사상 이론 활동으로 존경하는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을 끊임없이 발전 풍부화시키고 계신다.

그로 하여 조선혁명은 그 어떤 탈선이나 우여곡절도 없이 승리적으로 전진하여 왔으며 사회생활은 자그마한 침체도 모르고 발전하고 있으며 온 사회에는 약동하는 혁명적 기풍이 차넘치고 있다.

오늘 조선에서 이룩된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외교 분야의 모든 성과들과 전변들은 **김일성**주석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신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영도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조선인민은 수령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실한 위대한 수령의 후계자를 모시게 되였다.

오늘 세계 사회계는 김정일동지를 21세기를 자주의 길로 이끄실 위인이시라고 칭송하면서 그이께서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실 것이며 조선을 보다 위력하고 번영하는 나라로 전변시키시고 세계인민들에게 보다 큰 희망과 용기를 안겨주시리라는 굳은 확신을 표명하고 있다

이것은 조선인민의 행복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투쟁하는 인류에게 있어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인 사변이다.

조선에서는 다른 나라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국가수반의 부재≫로부터 오는 그 어떤 혼란의 징조나 동요의 그림자조차 볼 수 없다.

온 나라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인민은 슬픔을 용기로 바꾸어 더 큰 정력을 가지고 **김일성**주석의 유훈관철을 위한 투쟁에 과감히 일떠섰다.

김정일동지의 이론적 저작들을 읽어본 모든 사람들은 그이의 사상 이론적 예지에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이의 노작들은 그 어떤 복잡한 문제도 명확히 밝혀주는 분석의 심오성, 기성아론에 대한 창조적인 입장, 철의 논리, 소박하고 인민적인 문체로 특징지어진다.

나는 **김정일**동지의 유명한 노작들인 ≪주체사상에 대하여≫,≪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 수 없다≫,≪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비롯한 많은 노작들을 읽어볼 기회를 가졌다.

이 귀중한 고전적 노작들은 역사적 교훈에 대한 명백한 분석과 과학적인 통찰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의 길을 밝혀주고 있다.

특히 노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는 지구상의 모든 곳, 더욱이는 사회주의를 강력히 지향하는 나라들에서 거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노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진 것은 과학으로서의 사회주의의 실패가 아니라 사회주의를 변질시킨 기회주의의 파산을 의미한다.**
> **사회주의는 기회주의에 의하여 일시 가슴아픈 곡절을 겪고 있지만 그 과학성, 진리성으로 하여 반드시 재생되고 종국적 승리를 이룩하게 될 것이다.≫**

이 노작은 사회주의의 재생과 종국적 승리에 대한 굳은 확신과 자주성을 지향하는 조선인민과 세계인민들에게 사회주의의 승리에 대한 신심을 안겨주고 ≪사회주의의 종말≫에 대하여 떠드는 제국주의자들과 사회주의 배신자들에게 심대한 사상적 타격을 가한 사회주의의 테제이다.

노작을 탐독하면서 나는 어떻게 되어 조선과 같이 크지 않은 나라가 이전 소련과 일련의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된 시각에도, 온 세계를 휩쓸다시피한 수정주의의 압력 밑에서도 견디어 낼 수 있었는가 하는데 대하여 생각하였다.

나는 여기에서 **김정일**동지의 철의 의지, 특출한 담력, 철저한 자주적 입장, 사회주의의 승리에 대한 굳은 확신이 거대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인민의 일심단결은 법령이나 권력, 명령으로는 실현할 수 없다.

국제공동체를 놓고 볼 때 어느 나라의 지도자나 다 권력을 잡으면 인민을 자기편에 끌어당기기 위하여 여러모로 노력하며 그에 토대하여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려 한다.

그러나 그 어느 지도자도 전체 인민을 묶어 세우지 못하였다.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업적은 당과 인민을 일심 단결시키고 이 일심 단결에 의하여 사회주의 위업을 힘있게 전진시키신 것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언제나 인민의 이익을 첫 자리에 놓으시며 인민을 위해서는 아무 것도 아끼지 않으신다.

그이의 사랑과 배려는 나라의 모든 인민들에 미치고 있다.

반석같이 다져진 조선인민의 일심단결은 외세의 그 어떤 압력이나 위협, 제재나 봉쇄를 무맥하게 만든다.

이미 혁명활동의 초시기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을 혁명적 문학예술의 본보기로 만드시려는 위대한 뜻을 품으시였다.

결과 형식에서 민족적이며 내용에서 사회주의적인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화가 활짝 꽃펴나게 되었다.

참으로 **김정일**동지의 존함은 ≪20세기가 낳은 문학예술의 영재≫, ≪20세기 사회주의 문예부흥기의 창시자≫로 인류문화사에 새겨졌다.

김정일장군의 의지와 담력은 조선인민이 ≪핵문제≫를 구실로 사회주의 조선을 말살하려던 미국과 그 추종자들의 군사 정치적 공세를 짓부시고 제3단계 조미회담에서 상과를 거둘 수 있게 하였다.

조선은 크지 않은 나라이지만 세계의 유일초대국에 맞서 자기의 요구를 관철하고 있다.

오늘 조선의 그 어디에서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자!≫라는 구호들을 볼 수 있다.

신념의 이 구호들은 인민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신 **김정일**동지께서 내놓으신 것이다.

조선인민이 자기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그이께 자기들의 운명을 의탁하는 것은 지극히 응당한 일이다.

오늘 세계 사회 계는 **김정일**동지를 21세기를 자주의 길로 이끄실 위인이시라고 칭송하면서 그이께서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실 것이며 조선을 보다 위력하고 번영하는 나라로 전변시키시고 세계인민들에게 보다 큰 희망과 용기를 안겨주시리라는 굳은 확신을 표명하고 있다.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은 존경하는 **김일성**주석의 위대성과 더불어 조선인민의 심장 속에 온 세계 인민들의 심장 속에 확고히 자리잡고 있다.

장군의 력사 영원히 흐른다(1)

≪로동신문≫ 2월 9일 정론

백두산,

장쾌한 백설의 메부리 창공을 치뚫으며 솟은 거룩한 산정에 서니 장장 60성상 승리와 변혁의 눈 부신 자욱을 찍어 온 위대한 력사의 대하가 이 가슴에 파도쳐 온다.

백두산의 호랑이 빨찌산김대장이 서리발총검으로 일제의 백만대군을 쓸어 눕힌 항일혈전의 눈보라천만리, 백두산야에 청춘의 애국열을 휘뿌리시며 광명성을 받들어 올린 조선의 첫 녀장군의 총소리속에 흘러 온 백두산의 이야기,

밀림은 끝없이 설레인다.

눈보라는 폭풍치며 웨친다.

장백산 줄기줄기,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욱으로 흘러 온 백두산장군들의 력사는 오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혁명천만리와 더불어 21세기장군별의 력사로 대를 이어 영원히 흐르고 있다.

* *

해마다 2월의 명절이며 꽈르릉 - 우뢰를 치며 정일봉마루우에 축포가 터져 오른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탄생일을 맞이하여 우리 인민군대의 륙해공군이 백두산하늘가에 터뜨리는 축포성, 축포성…

천하절승 백두산의 서리꽃밀림과 어울려 칠색령롱한 불보라 펴지는 2월의 그 장관을 어디에 비기랴.

아름답지만 않다. 황홀하지만 않다.

백두산군대가 자기의 고향 백두산에 들어 와 백두산장군을 우러러 터뜨리는 2월의 축포성에는 백두산혁명실록의 갈피갈피가 어려 있다.

조선의 력사는 백두산장군들의 력사로 흐르고 있으며 또 영원히 흘러 가야 한다는것을 저 2월의 정일봉축포가 소리쳐 말하고 있다.

정일봉의 우뢰 울어 광명의 60성상,

소백수 푸른 물이 굽이쳐 흘러 승리와 행복의 60성상,

얼마나 위대한 력사가 이 땅에 엮어 져 왔는가.

2월은 이 나라에 장군복을 내리고 장군의 력사가 천년만년 영원히 흐르게 한 백두산강성대국의 위대한 기원일로 찬연한 빛을 뿌리며 영광의 뢰성을 울리고 있다.

백두산장군력사가 흐른다!

이것이 뜻 깊은 이해의 2월에 세상을 향하여 터뜨리는 조선의 환희, 조선의 긍지이다.

붉은기조선의 력사를 돌이켜 보면 그것은 피어린 싸움과 승리의 력사, 세상을 놀래운 창조와 변혁의 력사, 소중한 행복과 번영의 력사로 자랑스럽다.

그러나 이 모든것을 한줄기로 꿰여 주며 우리의 심장을 크나큰 자부로 가득히 채워주는것은 그것이 바로 백두산장군력사라는것이다.

그렇다.

조선의 력사는 장군의 력사이다.

그 어떤 문인정치가가 아니라 백두의 총대를 높이 든 장군들이 우리 혁명을 이끌어 왔다.

위대한 **김일성**동지,

그이는 조선의 장군력사의 시조이시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해 백두산과 조선을 그 기상과 위용에서 일치시켜 가는 력사, 백두산위인을 따라 혁명의 불길이 타오르고 민족의 명맥이 살아 높뛰며 조국과 인민의 존엄과 행복이 만발하는 주체시대의 막이 열렸다.

위대한 **김정숙**동지,

그이는 경애하는 수령님과 함께 백두밀림을 헤치시며 장군력사를 창조한 또 한분의 장군, 미래의 조선을 안아 올린 성스러운 은인이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

그이의 탄생으로 이 땅에는 백두산**3**대장군이라는 대통운이 텄다.

그이의 혁명활동으로 하여 백두산장군력사가 한 세대뿐아니라 세기와 세기를 이어 흐르게 하는 영원한 력사의 다리가 놓아졌다.

참으로 얼마나 고귀하고 크나큰 자랑인가.

아무리 인류를 돌이켜 보고 세상을 둘러보아도 우리처럼 위대한 장군들이 대를 이어 나라를 억세게 이끌어 가는 그런 화폭은 찾아 볼수 없다.

자기를 지킬 힘이 약한 탓에 인류력사에서 영영 사라져 버린 작은 민족들이 그 얼마이며 많은 인구와 자원을 가지고도 힘센 나라들에 눌리워 기를 펴지 못하는 나라들은 또 얼마인가.

장군의 출현과 장군력사,

이것은 위인이 없어 고개를 수그린채 수난의 오솔길로만 비칠비칠 걸어 와야 했던 우리 민족사의 요청이였다.

이것은 제국주의강적들과의 만만치 않은 힘의 대결속에서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야 하고 작고 뒤떨어 진 나라로부터 온 세상을 굽어 보는 강성대국에로 솟구쳐 올라야 하는 조선의 운명적요구였다.

백두여 말하라.

기나긴 세월 천만산악을 거느리고 조선의 머리에 백두산이 솟아 있는것은 과연 무엇때문이였더냐.

그것은 삼천리금수강산의 경개 하나만을 빛내이라는것이 아니였다.

이 나라의 기초를 자기의 뿌리와 같이 깊게, 이 나라의 성벽을 자기의 바위와 같이 튼튼하게, 이 나라의 존엄을 자기의 절정과 같이 높게 해줄 민족의 영웅을 기다려 백두산은 솟아 있었다.

단군이래 조선의 력대 건국자들이 조종의 산 백두산의 성스러운 기운으로 심신을 다져 이 나라의 기상을 떨쳐 보고저 말발굽소리높이 여기에 올라 보기도 하였다.

백두산돌은 칼을 갈아 다 없애고 두만강물은 말을 먹여 다 말리리라는 호기찬 시구를 남긴 장수도 있었다.

허나 한때의 명성으로 그쳐 버리거나 뜻을 펴지 못한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조선은 본시 힘이 약한것만큼…≫, 이것은 망국의 검은 구름이 밀려 오던 19세기 말 조선과 관련한 대국들의 문건에서 하나같이 볼수 있은 표현이였다.

이 나라가 마침내 왜적의 군화발에 짓밟혔을 때 백두산 너는 그 얼마나 수난의 아픔에 몸부림치며 격노했던가.

간악하기 그지없는 일제침략자들이 이 나라 삼천리에 뻗어 내리는 백두의 정기를 말살해 보겠다고 백두산줄기의 요진통들마다에 쇠말뚝을 박을 때 백두산 너는 민족의 구원자를 얼마나 피 타게 찾았던가.

마침내 백두산에 암흑을 밀어 내는 장군별이 솟고 미래를 밝히는 광명성이 솟아 민족사의 새 기원이 열리였다.

이때부터 조종의 산은 지각을 뚫고 솟구치는 용암마냥 민족의 기상을 한껏 내뿜기 시작했다.

우리 민족은 연약하고 얼음에 찬 무궁화민족으로부터 강대하고 존엄 높은 백두산민족에로의 력사적인 운명전환을 맞이하였다.

오직 백두산장군들만이 이끌어 올수 있은 조선혁명의 로정이였다.

민족의 몸을 칭칭 휘감은 노예의 사슬을 부시는 항일대전, 령으로부터 시작해야 했던 새 조국건설과 세계≪최강≫을 떠드는 미제를 때려 눕혀야 했던 반미대전, 참혹한 페허우에서 일떠서야 했던 복구건설과 천리마시대,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앙양이 일어 났던 속도전시대, 우리의 운명을 멸족의 위기에서 구원한 ≪고난의 행군≫…

백두산장군들의 생애와 더불어 우리 조국이 세번 구원되고 세번 빈터에서 일어섰으며 세번의 대를 이어 장군복을 누리는 큰 행운을 지니게 되였다.

폭풍의 력사를 장군이 아니고 누가 감당할수 있는가.

한굽이한굽이가 삶과 죽음의 계선이고 시련의 고개를 넘으면 더 험한 고난의 령이 막아서는 이런 길은 산악 같은 담과 무적의 힘을 지닌 장군만이 이끌어 올수 있었다.

걸음걸음이 장군의 의지를 요구했고 운명의 매 순간마다에 장군의 손탁이 필요했다.

백두산장군실록은 그 한페지한페지가 폭풍의 돌진이고 번개의 번뜩임이며 우뢰의 메아리이다.

그것은 가난과 몽매에 쩌들어 온 땅을 백두의 보습으로 갈아 엎고 한 나라의 모습, 한 인민의 성격과 기질을 새로이 형성해 온 민족사의 대전환기이다.

그것은 성스럽고 위대한 내용으로 꽉 차흐르는 영웅서사시이며 위대한 변혁과 거창한 창조로 력사를 뒤흔들어 온 세기적대걸작품이다.

백두의 밀림이 폭풍쳐 설레인다.

만리창공에 흰 머리를 휘날리며 거연히 솟아 이 땅과 세계를 굽어 보는 백두산, 그 산자락아래로 흘러 내린 성스럽고도 위대한 력사의 심원한 뜻이 무엇인가를 쉬임없이 이야기하며 밀림은 설레인다.

조선의 장군들의 력사는 총대를 운명처럼 틀어 쥐고 조국을 찾고 총대로 불의와 침략을 짓뭉개며 총대로 높이 내세운 리념과 목적을 성취해 가는 위대한 힘의 력사이다.

장군이자 총이다.

외적의 어지러운 말발굽소리, 정복의 칼이 백성의 목을 버이는 소리,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느던 류랑민들의 한숨소리며 멀리 부산항의 처량한 배고동소리, 이 모든것을 다 보고 들어 온 백두, 기치창검을 비껴들과 침략에 저항해 나섰던 독립용사들의 마지막 싸움도 다 굽어 본 백두산,

더는 민족의 력사가 그렇게 흘러서는 안되겠기에 백두산은 5천년민족사의 총화로서 마침내 위대한 총대장군들을 세분이나 받들어 올렸다.

어찌하여 명성 높은 문호로 될수도 있었고 미래를 키우는 탁월한 교육자로 될수도 있었으며 세계적인 찬탄을 불러 일으키는 음악가, 연출가로도 될수 있었던분들이 총대와 한생의 인연을 맺은 장군으로 되시였는가.

남 달리 가슴 아픈 수난과 치욕속에 살아 온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수호하며 강성대국민족으로 만드는 일은 오직 장군만이 수행할수 있었다.

장군의 심장만이 이 나라의 운명을 책임질수 있었고 장군의 두뇌에서만이 위대한 존엄과 번영의 지략이 빛발쳐 나올수 있었으며 장군의 손탁에서만이 인민의 리상 강성대국이 일떠설수 있었다.

일제의 철권이 두려워 피바다의 조국을 등진 우국지사들이 이국의 골목길과 벽난로앞에서 독립을 운운하고 있을 때, 침략자의 발밑에 꿇어 앉은 명문지사들이 향락의 술잔에 민족의 기개를 풀어 마시며 ≪실력배양≫을 떠벌이고 있을 때 겨레의 아픔을 낟낟이 총대에 재우시여 백두산야에 항일전의 불폭풍을 일으키신 절세의 애국자 **김일성**장군,

이 나라 많은 녀성들이 설음의 ≪싸구려≫를 웨치고 눈물의 드레박을 펴 올리고 있을 때 용약 백두의 항일전에 뛰여 드시여 태양옹위의 총성을 울리시고 포연스민 군복자락에 미래의 장군복을 안아 올리신 **김정숙**장군,

이렇게 시작된 조선의 장군력사였다.

백두광명성 탄생,

그것은 한없이 귀중한 백두산장군력사의 영원성을 온 세상에 알리는 장엄한 뢰성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는 우리 나라에 또 한사람의 장군, 김정일장군이 있는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국과 혁명을 이끌고 세기와 세기를 폭풍쳐 온 위대한 장군의 발걸음소리가 쿵쿵 들려 오는것만 같다.

여기 백두산밀영고향집뜨락을 나서 백두산을 내리신 우리 장군님의 발자국은 어디로 어떻게 새겨 져 갔던가.

경애하는 장군님은 정녕 백두산의 아들답게 자신의 력사를 한 인간의 일대기로가 아니라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통채로 안은 백두산력사로 만드시였다.

여기 고향집으로부터 찍혀 진 우리 장군님의 발자국을 따라 가면 항일대전으로부터 ≪고난의 행군≫과 선군시대에 이르는 우리 혁명의 모든 단계와 과정이 하나의 굵직한 흐름으로 이어 진다.

(내일 계속)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역사 강좌 제22회
학사 김창호 선생 - 주체91, 5월 28일

주체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할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천명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할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천명하신데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49, 1960년 9월에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대학에 입학하신 날 아침 먼저 용남산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그것은 어버이 수령님께서 광복직후 몸소 대학의 터전을 잡아주시기 위해 오르셨던 뜻깊은 곳이였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이 정중히 모셔져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해성군 용남산 마루에서 녹음 속에 고요히 솟은 대학의 웅장한 모습을 부감하시며 시 ≪조선아, 너를 빛내리≫를 읊으시였습니다.

그럼 먼저 그 시를 읊어드리겠습니다.

해솟는 용남산 마루에 서니
삼천리 강산이 가슴에 안겨온다
이 땅에서 수령님 높은 뜻 배워
조선혁명 책임진 주인이 되리
아 조선아, 너를 빛내리

위대한 수령님 높이 모시고
주체의 한길로 억세게 나아가리
사나운 풍랑도 폭풍도 헤쳐
조선을 이끌고 미래로 가리
아 조선아, 너를 떨치리

누리에 빛나는 태양의 위업
대를 이어 햇빛으로 이어가리라
주체의 붉은 노을 지구를 덮을
공산주의 그날의 앞당겨 오리
아 조선아, 나의 조선아

들으신 바와 같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시 ≪조선아 너를 빛내리≫에서 주체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할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천명하셨습니다. 이 시는 오늘도 우리 인민들과 세계의 진보적 인류의 심장속에 크나큰 충격과 뜨거운 감동을 안겨주며 불멸의 노래로 힘차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시가 그토록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 절세의 위인의 투철한 신념과 강철의 의지, 무비의 담력를 담은 위대한 맹세이고 불멸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시 ≪조선아 너를 빛내리≫에서 펼치신 주체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할데 대한 구상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체혁명위업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한 구상에는 무엇보다 먼저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배워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발전 시켜갈 믿음직한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하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 시간에 이미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사실이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느 한 나라의 이름있는 종합대학에 유학하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청을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세계 정치가들의 약력을 보면 그들 대부분이 크고 발전된 나라에 유학을 했고 또 그래야만 정치가로서의 권위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현상이였습니다. 그러나 경애하는 장군님의 결심은 남다른 것이였습니다. 우리 인민이 수천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만인이 우러르는 태양이시고 절세의 위인이시며 동서고금에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정치가이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 밑에 조국땅에서는 거창한 창조와 변혁이 이룩되고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조국땅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사회주의 낙원을 일떠세우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따라 배우실 결심이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세련된 영도력, 숭고한 덕성을 따라배울때 조선혁명을 책임진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굳은 신념을 간직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대학시절이야 말로 주체위업을 계승해서 조선혁명을 떠밀고 나갈 준비를 갖추는 보람찬 시기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시 ≪조선아, 너를 빛내리≫에는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할 믿음직한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하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체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할데 대한 원대한 구상에는 다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조선혁명을 주체의 한길로 억세게 이끌어 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적 신념과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시 ≪조선아, 너를 빛내리≫의 두 번째 연에는 ≪사나운 풍랑도 폭풍도 헤치고 조선을 이끌고 미래로 가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사나운 광풍이 휘몰아치고 어떤 모진 세파가 밀려와도 과감히 뚫고 조선혁명을 주체의 한길로 휘황한 미래로 억세게 이끌어 나가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철의 신념과 의지가 맥박치고 있습니다.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을 높이 받들어 모시고 수령이 추켜든 혁명의 기치 따라 전진하는 것은 노동계급의 혁명

참으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용남산 마루에서 읊으신 시 ≪조선아, 너를 빛내리≫는 그이께서 주체의 조국을 한품에 안으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할 원대한 구상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역사의 맹세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펼치신 웅대한 구상에서 우리 인민은 장군님 계시여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가 담보되어 있음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주체사상이 안아올 인류의 찬란한 미래를 내다보게 됐습니다.

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필수적 요구입니다. 그러나 선대 수령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고 수령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옹호고수해 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령을 높이 받들어 모시지 못하고 수령이 추켜든 혁명의 기치 따라 전진하지 못할 때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중도에서 좌절되고 맙니다. 지난 날 이전 쏘련에서는 현대수정주의자들이 노동계급의 수령들인 레닌과 스딸린을 모독하고 헐뜯었습니다. 사회주의의 변질과 붕괴과정은 현대수정주의가 대두해서 수령과 혁명선배들을 헐뜯고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을 왜곡변질시키면서 시작됐습니다. 혁명선배에 대한 태도를 혁명에 대한 태도문제이며 그것은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도덕의리의 새 경지를 개척하신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는 일찍부터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의 한길을 따라 억세게 싸워 조선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시려는 확고부동한 신념과 철석같은 의지를 지내고 계셨습니다. 주체혁명위업은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해야 하는 간고하고도 성스러운 사업입니다. 따라서 주체의 길로 전전하는 혁명 도상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아니라 앞을 가로막는 준엄한 시련도 있고 참기 어려운 고난과 가슴아픈 희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벌써 일찍이 주체혁명위업 수행의 길에 중첩될 수 있는 난관과 시련을 멀리 내다보시고 혁명적 신념과 의지를 가다듬으신 것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혁명위업을 기어이 완성하시려는 그 혁명적 신념과 의지로 오늘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시면서 조선혁명을 주체의 한길로 억세게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 혁명의 앞길에는 참으로 헤아릴 수 없는 난관과 시련이 중첩되어 왔었습니다.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 인민들에게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크나큰 불행은 어버이 수령님을 잃은 것이였습니다. 게다가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원쑤들의 고립압살책동이 그 어느때보다 강화되었고 여기에 또 몇 년째 자연재해가 겹쳐들었습니다. 이로부터 우리 당과 인민은 여러해째 계속된 고난의 행군에 이어 강행군을 해야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온갖 난관과 시련 속에서도 추호의 흔들림 없이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시면서 조선혁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특히, 위대한 수령님을 생전에 계실 때 보다 더 잘 그리고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심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공산주의자들이 어떤 도덕관을 가지고 자기 수령을 받들어 모셔야 하는가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대학에 입학하신 날에 읊으신 시 ≪조선아, 너를 빛내리≫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수하시려는 그이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가 깃들어 있습니다.

주체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할데 대한 구상에는 또한 주체사상에 대한 세계사적 승리를 반드시 이룩하시고야 말 경애하는 장군님의 원대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의 혁명과 건설에 가장 올바른 지도사상이며 인류의 자주위업의 승리를 담보하는 혁명의 위대한 기치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선혁명과 국제노동운동의 역사적 경험과 교훈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기초해서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만이 인류의 자주위업을 성과적으로 이룩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하게 정당한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로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영원히 충실하게 받들고 이어 나가실 굳은 신념과 의지를 피력하시면서 주체의 창연한 기치가 온 누리에 나부끼며 주체사상의 세계사적 승리가 이룩될 그날을 앞당겨 오실 굳은 결의를 다지셨습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용남산 마루에서 읊으신 시 ≪조선아, 너를 빛내리≫는 그이께서 주체의 조국을 한품에 안으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할 원대한 구상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역사의 맹세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펼치신 웅대한 구상에서 우리 인민은 장군님 계시여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가 담보되어 있음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주체사상이 안아올 인류의 찬란한 미래를 내다보게 됐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하시여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해 나갈 원대한 구상을 선포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정력적인 혁명활동을 벌리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대학생들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준비시키기 위해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 교양을 강화하는 사업을 조직지도 하신데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경찰당국, 통일연대 사무처장 등 연행하는 폭거 자행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24일 경찰당국이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사무처장 김이경씨를 비롯한 8명을 집시법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몰아 연행했습니다.

당국은 이날 부득이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나라당사 앞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6.15남북공동선언 훼손발언규탄 기자회견을 사전 신고없이 열었으며 ***********다고 걸고 들면서 그것을 불법으로 매도해 이러한 용납못할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당국은 또 경찰의 탄압에 분격해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항의방문한 이 단체 상임대표 등 6명과 현장에서 취재를 하던 통일뉴스 홍경미기자도 연행했습니다.

이것은 이회창역도의 반통일망언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는 각계층 민중의 정당한 목소리에 대한 악랄한 도전행위이고 경찰당국이 한나라당의 들러리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반민족반통일역적 이회창이 지난 22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 남측의 연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했다는 6.15공동선언의 조항을 걸고 들다 못해 심지어 이 조항을 폐기해야한다는 망발까지 늘어놓았습니다. 이회창의 이같은 망발은 6.15공동선언을 뒤집어엎고 남북관계를 대결의 원점으로 몰아가려는 속셈을 노정시켰다고 봅니다.

이회창의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망발과 관련해 지금 각계 민중속에서는 극악한 반통일분자 이회창에 대한 저주와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통일연대 사무처장 등이 이회창의 반통일적 망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찬양을 받을지언정 절대로 탄압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당국은 이들의 의로운 행동을 문제시해서 연행해 가는 폭거를 자행했으니 이 세상에 이런 불법무도한 강도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현시기 이회창역도의 반민족반통일적 행위를 규탄하며 그의 대통령후보직사퇴를 요구해 투쟁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애국적 소행이고 이회창의 망발에 맞장구를 치는 것은 역사와 민족앞에 대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경찰당국이 자행한 폭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반통일적 행위인 것입니다. 경찰당국이 계속 각계 민중의 이회창반대투쟁을 탄압하려고 광분하고 있지만 이것은 반통일분자들의 망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경찰당국은 탄압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반항이 있고 투쟁이 열린다는 것을 명심하고 부당하게 연행한 통일연대 사무처장 등을 무죄로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제의 초점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28일

비열한 고발행위

속담에 도둑이 매를 든다는 말이 있죠. 한나라당의 이회창이 하는 짓이 꼭 속담 그대로라고 할겁니다. 그럼 이번엔 지식인 김지호씨의 글 ≪비열한 고발행위≫를 임기수씨 보내드리겠습니다.

훌륭한 노래는 민심을 반영하고 시대를 대변한다.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 노래일수록 그 감화력은 비상히 강하다. ≪기특한 과자≫를 비롯한 반미가요들이 창작, 발표되자마자 각계 민중들속에서 널리 애창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민의 사랑받는 노래를 연이어 창작, 발표한 사람은 30대의 젊은 작곡가인 윤민석씨이다.

최근에는 또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어≫라는 노래를 지어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 노래는 실제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았으나 애비의 친일행적, 아들의 병역기피 등 국민의 분격을 자아내게 하는 대표적 사례들을 있는 그대로 담아낸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는 자들이 있다. 한나라당의 이회창패당이 바로 그런 자들이다.

반미풍자가요들이 ≪한국≫사회에 널리 파급되는데 대해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던 이회창패당은 이번에 윤민석씨가 또다시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어≫라는 풍자가요를 창작, 발표하자 때를 만난듯이 그를 검찰에 고발한다, 어쩐다하며 분주탕을 피우고 있다.

도둑이 제발 저려 한 행위겠지만 이회창패당의 그 비열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연예인이 현실을 반영한 노래를 창작하는 것은 자기의 본업이면서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이다. 더욱이 친일사대를 청산하고 온갖 부정비리를 척결하는 것은 시대의 요구이고 국민의 권리이다. 시대적 의무감을 자각한 윤민석씨는 그 노래를 발표하면서 기사를 지어낸 것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했다는 자료들을 모두 공개했다. 있는 사실을 걸고 들면서 범죄시하는 것 자체가 초보적인 인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회창가문의 더러운 행적과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아는 사실이다.

이회창애비의 친일행적만해도 그렇다. 이회창의 애비 이홍규는 1930년대초에 벌써 일제 검찰계에 투신해 벼락출세를 한 특등 친일매국노이다. 그는 조선총독부관하의 해주지방법원 서흥지청에 있으면서 독립운동가들을 밀고, 처형하는데서 악명을 떨쳤고 광주지방법원 사상담당검사의 밑에서 서기직을 할때에는 우리 민중의 독립운동과 변혁운동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는데 특출한 공로를 세워 일제의 총애를 받았다.

이홍규는 8.15광복후 청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울지방법원판사 등 법조계의 요직을 차지하면서 인생말년까지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다. 지금 이 땅에서 친일파청산운동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것도 이홍규와 같은 친일매국역적들과 그 후손들이 민족의 심판을 받고 청산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비호밑에 ≪한국≫의 정계와 사회계 등을 두루 점거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회에 악폐를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회창의 두 아들 병역기피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이회창은 누구나 거쳐야할 군복무에 비열한 권모술수를 써서 자기의 아들들을 체중미달의 판정을 받게 해 군복무에서 면제시켰다. 다른 사람의 자식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군대에 보내야한다고 기염을 토하면서 자기 자식들은 거기서 빼돌려 호의호식하게 하는 이런 자를 어떻게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회창이 애비의 친일행적과 아들들의 군복무기피를 사죄할 대신 제반 사실 자료를 가지고 노래를 지었다고해서 문제시하며 고발소동을 일으키고 있으니 이 얼마나 분격할 일인가. 이회창이 국민앞에 죄를 짓고도 법의의식에 사로잡혀 평범한 연예인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우려는 어리석은 망상이다. 또 한나라당이 윤민석씨를 고발조치해 이회창에 대한 악화된 민심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오산이다. 윤씨에 대한 고발행위는 국민의 반이회창투쟁을 더욱 고조시킬 뿐이다.

각계 민중은 윤민석씨를 법적으로 문제삼아 자기 가문의 용납못할 친일매국역적행위와 아들들의 병역기피를 정당화하려는 이회창을 정계에서 아예 축출해버리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벌여야 할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초보적인 도덕과 양심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이회창. 이런 자가 대통령자리에 앉게 되면 정치와 경제가 하루아침에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되고 남북관계는 악화될대로 악화돼서 전쟁이 터질 위기가 초래되게 될겁니다. 그러므로 이회창과 같은 역적이 절대로 대통령자리에 앉지 못하게 해야 하는 거겠죠.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28일~29일

F-X ≪아직 끝나지 않았다≫

F-X공동행동, F-15K재가 규탄대회 열어

≪우리 비통한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합시다.≫

F-X사업에 대한 대통령 재가 다음날, 문규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신부는 반드시 국민의 힘으로 F-X사업을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자고 참가자들을 독려했다.

29일 오전 11시 ≪F-X사업 외압 의혹 진상규명 및 F-15K내정 철회 공동행동≫(F-X공동행동)은 청와대 근처 통의동 한빛은행 앞에서 ≪F-15K 대통령 재가 규탄대회≫를 열었다.

그동안 F-15K 결정 철회를 위해 노력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규탄대회에서 시종일관 격앙된 분위기에서 대통령의 F-15K재가를 규탄하고, F-X사업에 대한 의혹규명과 F-15K도입반대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뜻을 밝혔다.

사회를 맡은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은 ≪4천만 국민은 하룻밤 사이에 6조원을 도둑맞았다≫며 ≪변변치 못한 대통령과 말도 안되는 국방부가 한미관계를 내세운 미국의 협박에 국민자존심을 송두리째 버리는 매국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분노를 표현했다.

문규현 신부 역시 ≪정말로 비통한 심정이다≫며 소감을 피력한 뒤 ≪김대중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길 포기했다≫며 ≪민족의 대통령으로 살기 위해서 반역사적 삶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죽어달라≫고 대통령의 F-15K 재가를 규탄했다.

이어 규탄연설에 나선 민주노동당 노회찬사무총장은 ≪월드컵 분위기에서 F-15K를 은근슬쩍 재가한 것은 F-15K에 대한 국민여망을 저버린 행위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국민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F-X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국방부를 비판했다.

노회찬 사무총장은 ≪김대중 대통령이 합의한 6.15 공동선언으로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를 없애기는커녕 이 땅 민족을 죽이는 전투기를 구입하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가 자기 활동을 부정한 것≫이라 주장했다.

총장 선임반대를 요구하며 7일간 단식을 진행중인 채종원 고려대학교 경제·정경2,3반 학생회장은 ≪학교나 국가나 구성원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다≫며 ≪학생들이 더욱 열심히 해서 국민들의 힘을 모아 F-X사업 결정을 철회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규탄대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어제 청와대앞 기자회견에서 전달하지 못한 81,300명의 국민서명을 청와대에 전달하려했지만, 청와대 국방비서 이모 대령이 받지 않겠다고 해 서명은 또다시 전달하지 못했다.

김종일 자통협 사무처장은 ≪종로경찰서에서 대표단 1인이 가져오면 받겠다고 청와대 국방비서가 말했다고 했는데, 막상 가려하니 받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을 번복했다≫며 ≪이것은 아마 도중에 경찰이 서명을 탈취하려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김종일 사무처장은 ≪청와대가 이렇게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데 서명을 전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서명용지를 참가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우리 항의의 표시로 서명용지에 불을 붙입시다≫고 제안해 F-15K 재가반대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은 청와대로 가지 못하고 한줌 재로 변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중대한 국익이 걸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예정일정을 앞당겨 도둑고양이 마냥 재가를 감행한 행위는 대통령 스스로 F-15K 도입재가가 떳떳하지 못한 것을 자인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F-15K재가 철회를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F-15K 도입 저지 투쟁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며 앞으로 불법 로비 의혹 진상규명과 김동신 국방장관, 최동진 획득실장 등 국방부 수뇌부의 구속 처벌,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수용 등 제반투쟁과 함께 납세거부운동 등의 전면적인 시민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뜻을 밝혔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28일 오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미 보잉의 F-15K 40대를 직구매하는 공군의 차기 전투기 사업에 대한 집행을 승인했다.

장동렬 기자
2002/05/29 통일뉴스

신문 방송, 김 대통령 F-X 재가 한 줄도 안다뤄

국방일보는 1면톱으로 대서특필, ≪언론 로비≫ 의혹

5월29일 아침, 일반의 상식을 깨는 ≪괴이(怪異)≫한 일이 벌어졌다.

이날 아침 신문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28일 차기전투기(F-X)로 미국 보잉사의 F-15K 40대를 사들이기로 최종 재가한 사실을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다. 이날 아침 방송들도 마찬가지였다. 몇번이고 조간신문들을 다시 뒤져보니, 단 한곳 한겨레신문만이 제2 사회면에 1단 기사로 짤막하게 재가 사실을 보도하고 있을 뿐이었다.

반면에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에서 발행하고 있는 이날자 조간신문 국방일보는 ≪F-X사업 집행승인≫이라는 제목으로 김 대통령의 재가사실을 다음과 같이 1면 톱기사로 대문짝만하게 보도했다.

국방일보는 ≪(미국 보잉사와의) 추가협상에서는 전투기 40대의 최종가격을 포함해 절충교역 비율, 후속군수지원 문제 및 제3국 판매분에 대한 환수비를 받도록 하는 등 우리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마무리해 이 사업을 둘러싼 부정적 여론을 해소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통령이 28일 오후 F-X를 재가한다는 사실은 전일인 28일 아침 연합뉴스를 통해 이미 예고됐고, 본지도 곧 이 사실을 확인해 보도했었다. 또한 그동안 F-15K 구입에 반대해온 2백70여개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F-X 공동행동≫은 김 대통령 재가 소식을 접하고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긴급 비상집회를 갖고 앞으로 계속해 반대투쟁을 펴나가기로 결의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이 전혀 재가 사실을 보도하지 않자, 한 순간 엉뚱한 생각까지 들었다.

≪혹시 국방일보가 오보를 한 게 아닌가. 대통령이 국민의 반대여론을 받아들여 막판에 F-15K 구매 재가를 취소한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 일정에 변화가 생겨 재가가 뒤로 늦춰진 것인가.≫

청와대측에 29일 아침 확인전화를 했다. 답변은 ≪김 대통령께서 예정대로 어제(28일) 재가를 하셨다≫는 것이었다.

한 마디로 어이 없었다. 미국 보잉사의 F15 구입건은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5%가 반대해온 중차대한 현안이었다. 언론들도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많은 보도를 해왔다. 많은 국민들은 비록 며칠전 국방부가 미국 보잉사와 추가협상을 마쳤다고는 하나, 최고통수권자인 김대통령이 이에 대한 재가를 하지 않기를 희망해왔다. 따라서 김대통령의 재가 여부는 당연히 초미의 관심사중 하나였다.

그러나 대다수 언론은 대통령 재가 사실을 1단 기사로조차 처리하지 않았다. 이로써 1단 처리를 한 한겨레신문과 재가사실만 단신 처리한 MBC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언론들은 ≪김 대통령의 재가≫라는 역사행위조차 자신의 데이타에 영원히 기록하지 않은 기괴한 모양새가 됐다.

한 신문사 담당기자는 이와 관련, ≪대통령 재가는 ≪절차상의 요식행위≫로 생각해 짧게 기사를 만들었으나 데스크가 이를 싣지 않았다≫고 기사가 게재되지 않은 경위를 해명하기도 했다.

또다른 신문사 기자는 ≪국방부가 보잉사와 추가협상을 체결하면서 이 문제는 이미 끝난 게 아니었냐≫고 반문하며 ≪청와대에 개입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협상과정에 했어야지 나중에 김대통령이 재가를 거부할리는 없다고 판단해 아예 기사를 쓰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반응은 어이없다는 것이다.

29일 아침 많은 이메일이 본지에 도착했다. ≪무명씨≫라는 이름의 한 네티즌은 이런 이메일을 보내왔다.

≪얼마나 대단한 넘들이 뒤에 있길래, 일간지에 F-15 재가내용이 한 글자도 보이지 않는지... XX같은 언론들 한심하네요.≫

언론의 ≪냄비 근성≫은 어제오늘의 새삼스런 현상이 아니다. 이번의 대통령 재가 비보도 역시 이런 냄비근성의 산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얼마나 대단한 넘들이 뒤에 있길래≫라는 네티즌의 의혹을 통해서도 읽을 수 있듯, 여론은 비보도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다. 혹시 광고주나 정부측의 로비가 있었는 게 아니냐는 식의 의문이다. 일종의 ≪음모론적 해석≫이다.

음모론은 절대로 바람직한 사회현상이 아니다. 그러나 이같은 음모론이 양산되는 상당부분의 책임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언론에 있다면 지나친 혹평일까. 5월29일 언론들이 한번 깊게 생각해볼 대목이다.

박태견 기자
2002/05/29 프레시안

한총련 의장 연행, ≪6.15공동선언 이행의 가늠자≫

난관에 봉착했던 ≪6.15 민족통일대축전≫(6.15 대축전) 관련 실무회담이 어제(28일) 북측 준비위원회가 보내온 팩스를 통해 재개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6.15 대축전의 성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한총련 의장이 연행돼 새로운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통일연대와 ≪한총련 합법적 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범사회인 대책위), 그리고 한총련은 29일 오전 11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6.15 공동선언 이행 파탄 음모 한총련 의장 불법 연행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한총련 의장의 연행은 정부가 6.15 공동선언 이행 의지와 6.15 대축전 성사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가늠자라고 주장했다.

이종린(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은 기자회견문 을 통해 10기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한총련 의장과 대변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며 이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공개질의를 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없는 상황에서 한총련 의장이 불법 연행됐다고 밝혔다.

또 한총련 의장 연행은 ≪6.15 공동선언을 파탄내고, 대선에서 이회창을 비롯한 반통일세력들을 세워내기 위한 미국의 책동≫의 일환으로서 이는 ≪6.15 민족통일대축전에 이어 8.15 민족공동행사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며 미국과 반통일세력들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어 통일연대 한상렬 상임대표와 한총련 윤경회 대변인, 그리고 범사회인 대책위 권오헌 상임대표도 각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겨우 복원된 남북관계와 민간차원의 민족대단결 운동을 파탄내고 한반도를 냉전과 분열의 시대로 되돌리려는 것≫이라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은 규탄연설을 통해 ▲올초 금강산댐 붕괴가능성 주장 ▲지난 22일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의 재지정 ▲관훈클럽에서 6.15 공동선언 2항 관련한 이회창의 망언 등 그간 6.15 공동선언 파탄 음모의 조짐이 계속돼 왔다고 주장하고, 이는 한반도의 ≪분단 고착≫과 전쟁을 부추겨 자국의 무기를 팔아먹으려는 미국의 음모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통일연대는 이후 이 문제와 관련, 통일연대와 범사회인 대책위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을 망라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또 세계 인권단체와 평화단체와의 연대 투쟁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총련도 어제 각 지역별로 ≪시민 선전전≫과 ≪시경 항의방문≫을 전개한 데 이어 ▲29-30일 광주집중투쟁, ▲6.3-16일 어머니 농성 ▲6.7일 수배자 및 대의원 지자체 투쟁 ▲6.14일 종교계 이적규정철회 예배 ▲6.16 각계 공동성명과 ≪합법화의 날≫ 행사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윤경회 대변인은 밝히고 있어, 이후 이 문제가 ≪6.15 민족통일대축전≫ 참가 여부와 맞물려 이슈화 될 전망이다.

한편, 10기 한총련 의장 김형주 전남대 총학생회장은 검찰이 지난 1일 10기 한총련 대변인과 함께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에서, 어제 오후 3시 20분경 서원대학교에서 학생회 간부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나오던 길에 보안수사대에 의해 강제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총련은 합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이적성 규정에 문제가 됐던 강령과 규약을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총련 간부들의 연행이 계속됨에 따라,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범사인 대책위≫가 결성돼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통일연대가 범민련 한총련의 이적규정 철회와 6.15 민족통일대축전 참가 보장을 요구하는 농성을 명동성당에서 진행하고 있다.

송정미 기자
2002/05/29 통일뉴스

10기 한총련 의장 연행을 자행한 미국과 반통일세력들과의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두돌을 뜻깊고, 성대하게 맞이하고자 하는 각계의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한번 반통일세력들의 행각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동선언 발표 이후 전 국민적으로 통일에 대한 의지와 열망이 분출되어오고 있습니다. 너나할 것없이 공동선언 지지이행의 길에 나서고 있으며, 북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대결과 분열에서 화해와 단합으로, 쳐부셔야할 적이 아닌 손 맞잡고 통일 조국을 만들어 갈 우리 민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임동원 특사의 방북과 공동보도문 발표로 이러한 노력이 현실화 되어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단의 논리로 살아왔던 미국과 반통일세력들은 여전히 변화된 정세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구시대적인 작태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분단의 장벽을 걷어내고, 통일된 강성부흥의 조국을 향해 내달리는 민족의 길 앞에 한반도에 핵 전쟁 준비를 하며 긴장을 조성하는가 하면, 조국통일운동에 모범적인 범민련과 한총련을 비롯한 민족민주단체에 대한 탄압의 수위는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5월 28일에 있었던 반통일세력들의 한총련 의장 연행은 역사가 정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거스르는 행각입니다.

한총련은 항상 조국과 민족의 부름 앞에 한발 물러섬 없이 떨쳐 일어났습니다.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을 외치며 죽어갔고, 피흘리며, 감옥에 끌려가면서까지 투쟁해왔던 조직이 바로 한총련입니다. 하지만 반통일세력들은 국가보안법을 들이밀며 이적규정이란 멍에를 들씌웠고 그로 인해 한총련이 당해야했던 탄압의 고통은 전세계에 있어보지 못할 정도로 눈물겨웠습니다. 하지만 공동선언이 발표되어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었으며, 이적규정이라는 것도 흐지부지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물며 반통일세력들은 10기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한총련 의장을 연행하였습니다. 어떤 법적 판단도 없이 한총련 의장과 대변인에 대한 검찰의 체포영장 발부를 규탄하며 기자회견과 검찰총장에게 공개질의를 한 것이 엊그제인데 아직 어떠한 답변도 없는 상황에서 왜 잡혀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한총련 의장은 연행되었습니다.

분노하고 또 분노하며 한총련은 미국을 비롯한 반통일세력들과의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한총련 출범식을 각계의 지지 속에서 성대하게 치러내고 6.15 민족통일대축전을 준비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총련에게 가해지는 탄압을 민족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전 민족의 의지를 모아 투쟁으로 뚫고 나갈 것입니다.

첫째, 누구나 알고 있듯이 한총련은 백만 대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한 대중조직입니다. 한총련 대의원은 전국 대학생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됩니다. 한총련 대의원을 이적단체 구성원이라 하여 연행하는 것은 백만 대학생 모두를 잡아가겠다는 선전포고인지 반통일세력들은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열려진 정세에 맞게 한총련은 작년에 6.15남북공동선언을 통일강령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따라서 반통일세력들이 걸고 넘어지고 있는 소위 이적 혐의가 구시대적임을 인식하고 10기 한총련에게 이적규정을 내리는 착오를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탄압의 본질이 6.15공동선언을 어떻게든 파탄내고, 대선에서 이회창을 비롯한 반통일세력들을 세워내기 위한 미국의 책동의 일환으로서 6.15민족통일대축전에 이어 8.15민족공동행사까지 염두에 두고 전개되고 있는 책동임을 전국민적으로 폭로하며 투쟁할 것입니다.

둘째, 반통일세력들의 한총련에 대한 탄압은 미국의 핵전쟁 책동과 맥을 같이하여 한반도의 조국통일 열기를 식히려는 반통일적인 행각인 것입니다.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투쟁은 바로 6.15공동선언을 지켜내는 길이며, 한반도에 핵 전쟁을 일으키려는 미국의 검은 속셈을 막는 투쟁입니다. 미국과 반통일세력들의 반통일적인 움직임에 민족민주단체들의 모든 힘을 집중해 투쟁하여 6.15 민족통일대축전과 8.15 민족공동행사를 성대하게 치러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반통일세력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한총련 의장 연행은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며, 전 민족의 조국통일 의지에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미국과 반통일세력들은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고 한총련 의장을 당장 석방하고 한총련과 범민련, 조국통일 운동 탄압을 즉가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2002년 5월 29일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한총련 합법적 활동 보장을 위한 범 사회인 대책위

≪10기 한총련 의장 김형주 구속 법적근거 없다≫

≪대의원대회지도 및 이적표현물취득≫혐의, 각계사회단체 석방투쟁에 전력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 적용≫이 정당한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특히 ≪10기 한총련도 이적단체≫라는 임의규정조차 공식적으로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김형주씨가 연행되자 각계사회단체에서는 곧바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석방투쟁에 전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통일연대와 한총련합법적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대책위(위원장 강만길, 범사회인대책위), 10기 한총련은 오늘 낮 11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한총련의장의 불법연행≫을 규탄했다.

통일연대 한상렬 상임대표는 한총련 의장을 구속한 경찰청의 공식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하며 ≪김형주군은 한국대학생 5월축전을 평화적으로 개최했으며, 연방제 통일방안을 6.15공동선언으로 강령개정하는가 하면, 합법적인 한총련을 위해 공개강연회나 토론회를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실제, 김형주씨는 10기 한총련대의원대회의 ≪이적표현물취득, 대의원대회 지도≫라는 명목으로 사전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광주지방검찰청 공안과에 사실확인을 한 범사회인대책위 강위원 집행국장에 따르면 ≪공안과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한총련대의원대회에서 사용했던 자료집 등이 이적표현물로 규정 된 것 같다≫고 전했다.

또 강위원씨는 ≪31일 9기 한총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발표되는데 아마 이적단체로 규정된 것 같다. 이에 준해 월드컵 이후 전체대의원들에 대한 대규모 검거작전이 따를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번 10기 한총련 의장 김형주씨의 연행이 ≪향후 있을 6.15민족통일대축전을 무마시키고, 이 행사에 참가하려는 범민련 한총련의 선별적인 불허를 공식화하려는 당국의 수순밟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종렬 범사회인대책위 상임대표는 규탄발언을 통해 ≪얼마 남지 않은 6.15민족통일대축전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이끌어야하는 마당에 학생들의 대표자인 김형주군을 연행했다는 사실은 행사를 파탄내고, 한총련과 범민련에 대한 선별불허를 더욱 노골화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범사회인대책위와 10기 한총련은 ▲29, 30일 광주집결 석방집중투쟁 ▲6월 3일부터 16일까지 민가협의 농성 ▲14일 한국기독학생연합 등 종교계의 이적규정 철회 예배등에 이어 16일을 한총련 합법화의 날로 상정해 대규모 집회를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범사회인대책위는 한총련 합법화를 위해 계획했던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 10만인 서명운동를 비롯해 이후 구속이 확정되면 법정투쟁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학생회협의회(의장 윤수진 연세대총학생회장)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월드컵과 지자체에 온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시기에 한국학생운동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한총련 의장을 연행해 간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반문하며 ≪월드컵을 통한 경제회복과 지자체 선거에서의 승리가 정권을 유지시키는데 필수불가결한 조건이기 때문에 민중의 삶을 폭로하고 민중의 삶을 대변하는 정치를 만들고자 투쟁하는 학생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백영순 기자
2002/05/29 유뉴스

≪6·15부정은 수구세력 위한 딴지걸기≫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는 지난 22일 열린 한 대선 후보 초청토론회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제2항에 대해 ≪연방제와 연합제의 공통점을 계속 고집할 경우 이 조항을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직 한번도 남북 정상간에 관련성이 지적이 되지 않은 만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는 의미라고 밝히면서도 이어 23일과 24일에 열린 토론회에서도 6·15 남북공동선언 제2항의 존속여부를 문제삼겠다고 거듭해서 주장함으로써 잇달아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즐기고 있는 듯하다.

이회창 씨는 대선 후보가 되기 전인 2000년 6·15 공동선언 당시에도 ≪국민적 합의가 없었다≫느니 ≪노태우 정권시절의 정책과 맞지 않는다≫느니 하면서 억설을 들이댄 바 있으니, 그리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그의 억설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다.

≪이 후보 ≪7·4 남북공동성명≫에 대한 입장 밝혀야≫

이 땅에서 전쟁의 참화를 없애고 평화와 통일의 길을 가져오기 위해서1953년의 정전협정은 3개월 이내에 열리는 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4·19혁명의 한 시기에서 학생·민간 차원의 통일 논의가 있었을 뿐 1970년대 초의 미·중 데탕트 시기에 이르기까지는 그야말로 논의자체가 불모인 상태였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렇지만 민족 통일에의 논의는 역사가 잠시도 쉼을 허락하지 않아,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의 합의에 이른다. 이회창 씨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이 나올 그 당시에도 공직에 있었던 것을 국민은 잘 알고 있다.

박정희 독재 정권이 과연 북의 통일 방안에 끌려가는 것조차 모르고 ≪7·4 남북공동성명≫의 조국통일 3원칙에서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데에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는 합의를 발표할 수 있었다고 보는지 이점에서부터 이 후보의 견해를 밝히기를 바란다.

≪7·4 남북공동성명≫에서 민족의 공통된 염원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남·북이 오랫동안의 상거로 생긴 ≪차이를 초월해서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단결해야 한다≫는 것은 남·북의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 서로의 차이를 강조하고 그 차이만을 극대화시켜 영구분단의 길로 떨어지지 말자는 기본원칙과 같은 것이다.

이 원칙에 입각해서 80년대 후반이래 청년·학생 대중·재야인사의 통일 논의가 활성화되었고, 급기야 노태우 정권 때인 1991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를 내어와 남북의 유엔 동시가입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분단의 고착화를 끊어내기에 이른다.

그렇다면 이 후보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전문에서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라고 전제하고 그 제1조에서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라고 한 것을 어떻게 보는가?

한나라당 이 후보는 이 남북합의서의 전문과 제1조의 정신에도 짚어볼 문제점이 있는가? 노태우 정권이 남쪽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라 해서 남북연합단계를 설정했고, 김영삼 정부도 남북연합단계를 설정했고, 김대중 정부(국민의 정부)도 연합단계를 설정하고 있음도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것은 남북이 합의한 통일의 기본 원칙선상에서 보건, 남북기본합의서의 구현 과정에서 보건, 통일의 길에서 생명인 민족대단결의 기본 정신 하에서 우리민족끼리 통일을 이루어내자는 이정표를 마련한 것으로 역사적 자기 평가가 될 수 있을 뿐이다.

반역사적 망언, 대선표몰이의 포로

그런데 그 다음에는 남쪽에 북쪽의 통일방안을 강요하려는 것이라고 하거나 그 반대로 북쪽에 남쪽의 통일방안을 강요하려는 것이라고 억설을 편다면 이는 7·4 공동성명이래 남북기본합의서 시기를 거쳐 30년에 이르는 동안 우리말로 된 그 문구조차 해독할 수 없다는 무지를 가장한 억설이 아닌가?

아니면 논의 과정의 그 의미가 국민적으로 승인되고 나아가 민족 통일의 이정표로서 첫걸음을 디딘 것을 시기한 나머지, 분단이익을 즐겨온 수구 세력의 입맛에 맞게 딴지를 걸어, 엄연한 역사적 사실마저 부정해보겠다는 반역사적 망언이라는 것도 모르는 대선표몰이의 포로가 아닌가? 이회창 후보에게 이런 물음조차 인식 대상이 아닌가?

박석률
2002/05/29 디지털말

한국민민운동단체들간의 연대연합과 대규모 연합전선조직체 건설문제(1)

한국민민운동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족점의 하나가 운동단체들간의 연대, 연합노력이 적극적이지 못하고 일상운동에서 행동통일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사실상 민민운동단체들간의 연대, 연합과 행동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전체 민민운동의 운명에 관한 중차대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 민민운동단체 간부들은 모종의 패권의식에 사로잡혀 연대, 연합을 고의로 외면하거나 이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지 않고 각개 약진하면서 좌절과 시련을 거듭 불러오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 민민운동의 이 같은 중요한 결점을 극복하는데 일조하려는 순수한 생각에서 필자는 그 동안 우리 민민운동에 대한 연구를 통해 얻은 지식을 토대로 민민운동단체들간의 연대, 연합과 대규모 연합전선조직체건설문제에 관한 소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1) 민민운동단체들간의 연대, 연합을 실현하는 것은 한국변혁운동의 성공을 위한 중대전제

민민운동단체들간의 연대, 연합을 실현하는 것은 한국변혁운동의 발전과 그 승리를 위한 필수여건이다.

변혁운동은 궁극에는 변혁운동세력과 반변혁세력간의 역량대결로 귀착된다. 반변혁세력에 대한 변혁세력의 역량상 우세가 확고히 보장될 때 변혁운동은 성공을 이룩하게 된다. 이것은 장구한 인류변혁운동사적 실천경험에 의해 확증된 절대불변의 진리이다.

일반적으로 변혁운동이 출발 및 발전기에는 변혁세력과 반변혁세력간의 역학관계에서 변혁세력측이 열세에 놓이고 불리하다. 매개 나라의 사회 역사적인 여건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나 예외 없이 군대와 경찰, 검찰 등 방대한 상설적인 폭압적 통치기구에 의거하고 있는 반변혁세력이 역량 상에서 변혁세력을 압도하게 된다. 이로부터 변혁운동을 준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시기에 있어서 변혁운동가들의 최대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같은 역량상의 열세국면에서 벗어나 반변혁세력을 압도할 수 있는 위력한 변혁역량을 결속하겠는가 하는데 돌려지게 된다.

변혁세력과 그에 저항하는 반변혁세력간의 역학관계에서의 우열을 결정하는 관건적인 고리는 사회중간세력이다. 다시 말해 사회중간세력이 어느 편으로 기울어지는가, 그 역량을 어느 쪽이 전취하는가에 따라서 변혁세력과 반변혁세력간의 역학관계에서의 우열이 결정되는 것이다.

사회중간세력은 구성상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중소상공인, 자유직업인 등과 같은 사회계급, 계층으로서의 중간세력 즉 중산계층이다. 소자산계급에 속하는 이들은 계급적 제한성으로 인해 변혁에 대한 입장이 확고하지 못하며 변혁세력과 반변혁세력간에서 부단히 동요할 수밖에 없다. 다른 하나는 정치적 중간세력이다. 이들 중에는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 같은 기본 계급, 계층도 있을 수 있고 중소상공인, 자유직업인과 같은 도시 소부르주아지들도 있게 되며 민족부르주아지들도 있다. 서로 다른 사회 계급적 처지에 있는 이들은 정치적으로 각성되지 못한 탓으로 다같이 확고한 정치적 입지를 정하지 못하고 변혁세력과 반변혁세력 사이에서 대체로 역량상 우세한 측에 편승하는 경향성을 가진다.

연대, 연합을 실현하는 것은 바로 이 사회중간세력을 조직된 역량으로 만들어 변혁세력의 편에 확고히 전취할 수 있게 하는 위력한 방도로 되며 더 나아가서 그것은 반변혁세력에 대한 변혁세력의 역량상 우세를 보장할 수 있게 한다.

80년 광주민중항쟁은 이를 반증하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청년학생들이 항쟁군중의 주력을 이루고 있었던 초시기만 해도 역량관계는 반변혁세력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대부분 사회중간세력으로 이루어진 시민세력이 항쟁에 대거 합세하면서부터 역량관계는 항쟁군중측에 유리하게 역전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대규모 군 무력이 투입되기 전까지 지속됐다. 다시 말하면 광주시의 지역적 범위에서는 역량상 변혁세력이 반변혁세력을 확고히 압도했고 그로 인해 항쟁군중이 광주시를 10일 동안이나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연대, 연합을 실현하는 것은 또한 한국민민운동발전의 절박한 요청이다.

최근 10여년동안에 한국의 민민운동역량은 많이 성장했다. 민노총, 전농, 한총련, 민교협 등 계급, 계층별 민민운동단체들이 상당한 정도로 조직된 결과에 이루어진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단체들의 조직규모가 크지 못하기 때문에 민민운동의 총적인 역량은 아직 미약한 정도에 불과하다.

우리 민민운동단체들 중 가장 힘있는 부대의 하나인 민노총의 경우만 해도 아직은 1천여만 노동자중에서 그 20분의 1에 불과한 60만 내외의 노동자들을 결집하고 있을 뿐이다. 전농이나 한총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전국의 농민대중이나 청년학생대중의 극히 제한된 일부를 결집하고 있을 뿐이다.

그나마 한총련의 경우는 대오가 날로 줄어들고 갈래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분열이 심각하다.

그러다 보니 민노총 지도부가 총파업을 선언해도 이에 참가하는 노동자수가 10만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한총련이나 전농이 주관하는 대중투쟁의 경우에도 참가자수가 많아서 수천 명이다. 이 같은 소규모 대중투쟁으로써는 투쟁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득권세력에게 큰 타격을 줄 수도 없다.

그렇다고 민민운동단체들의 조직규모를 당장 5배, 10배로 늘일 전망이 있는가 하면 그것도 당면해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변혁세력이 반변혁세력과의 역학관계에서 열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민민운동단체들간의 연대, 연합을 강고하게 실현하는 것이다.

물론 크지 않은 몇몇 민민운동단체들간의 연대, 연합을 실현한다고 해서 그 역량이 전체적으로 반변혁세력을 압도할 수 있을 정도로 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연대, 연합을 통해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는 반변혁세력을 압도할 수 있는 역량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16대 총선 시기 울산북구의 경우가 그것을 잘 실증해 주고 있다. 울산북구로 말하면 현대자동차소속 노동자들이 전체 유권자의 근 35%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전국연합, 민노총 등 민민운동단체들의 군중지반이 강한 지역중의 하나다. 따라서 선거전야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민노당후보의 당선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전국연합산하 울산연합 운동가들이 패권의식에 집착해 현대자동차노조에서 경선으로 선출한 후보를 제치고 민노당 지역지부에서의 재 경선을 통해 지역적 대표성이 없고 당선가능성도 불투명한 자기측 후보를 내세움으로써 민노당의 유일한 1석희망을 거품으로 만들었다. 4.13총선 당시 울산북구에서 울산연합측이 패권의식을 떨쳐 버리고 민노총과 선거연합을 이룩하고 공동행동을 했다면 이 지역구에서만은 한나라당후보를 제끼고 민노당 후보를 무난히 당선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연대, 연합은 또한 어느 한 계급, 어느 한 단체의 역량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투쟁과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준다.

민노총은 국민의 정부 출범초기부터 노동자대중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주되는 것은 이 투쟁이 농민대중과 청년학생들, 중소상공인 등 다른 계급, 계층의 대중적 지지를 받지 못한데 있다. 이 같은 사태가 지속되는 한 민노총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반대투쟁은 가까운 기간 내에 좋은 결과물을 기대하기 어렵다.

전농의 농축산물시장개방반대투쟁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90년대초 미국의 한국에 대한 시장개방압력이 거세지면서 시작된 이 투쟁이 노동자대중과 청년학생들, 광범한 도시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지 못함으로써 사실상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다른 계급, 계층, 다른 단체들과의 연대, 연합을 실현하지 않으면 어느 한 계급, 계층 또는 어느 한 운동단체가 개체의 힘만으로는 그 어떤 과제도 해결하기 어렵다.

반대로 연대, 연합을 실현한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문민정부 초기에 민노총이 총파업투쟁을 통해 정부의 노동법개악시도를 저지시킨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당시 민노총의 총파업투쟁은 농민대중과 청년학생들, 학계, 종교계, 언론계 등 광범한 계급, 계층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노동자대중이 각계층과의 연대투쟁에 힘을 넣음으로써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측면에서 운동가들은 반변혁세력에게서도 배워야 한다. DJ가 지난 15대 총선에서 JP와 연대하지 않았다면 집권을 못했을 것이다. 그처럼 이질적인 두 정치집단이 연대해 정권을 창출하는데 동일의 목적을 위해 나가는 민민운동단체들이 왜 연대, 연합을 못하겠는가.

한편 민민운동단체들간의 연대, 연합을 통해 변혁세력의 역량상 열세를 극복하는데서 산술적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측면이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연대, 연합에 참가하는 모든 민민운동단체들은 다 자기 고유의 군중기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단체들간의 연대, 연합의 실현은 전반적인 민민운동에 대한 군중의 지지도를 엄청나게 높이는 결과를 이루게 되며 그것은 연대, 연합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것이 강고할수록 더 큰 상승적 효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1987년 6월 민중항쟁시기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한 민주세력의 대단결과 항쟁과정에서의 그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시민세력을 비롯한 광범한 군중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불러일으킨 사실이 그것을 말해 준다.

민민운동단체들의 연대, 연합을 강화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의 한국사회변혁운동정세의 요청이기도 하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그것이 전민족적이며 전세계적인 지지 속에서 적극적인 실천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인해 우리 한국민중의 사회변혁투쟁과 조국통일투쟁에는 전례 없는 유리한 정세여건이 조성되었다.

우리 민중의 자주화에 대한 지향과 요구가 더는 ≪불법≫이 아닌 정당하고 적법한 것으로 각인되었고 이에 따라 민중의 자주화운동은 활화산처럼 분출되고 있다.

또한 민중의 사상과 정신 및 사회적 활동을 극심하게 억제해 왔던 국가보안법은 사문화되어 민민운동단체들과 각계 민중이 사회변혁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벌일 수 있게 됐다.

전 민중과 전 민족이 조국통일열망으로 충만해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반변혁세력, 반통일세력들이 현 정세국면을 역전시키기 위한 대반격을 준비하며 기회를 노리고 있다.

남북간의 화해, 교류, 협력관계가 급진전되고 한국민중속에서 반미, 반외세 자주화투쟁이 고양되는데 놀란 미국은 겉으로는 남북화해, 협력관계의 발전과 조국통일을 위한 움직임을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초조감을 감추지 못하며 6.15공동선언의 급속한 실천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이미 역사의 장막뒤로 물러났던 수구기득권세력들이 타고난 불운아인 김영삼씨를 부추겨 내세우고 단말마적인 기를 돋우며 ≪대반격≫을 꿈꾸고 있다.

이 같은 사회적 환경여건에서 민민운동단체들은 신속히 전열을 수습정비하고 올바르고 공통한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그에 따라 사회변혁운동과 조국통일운동을 추진해야 성공을 앞당겨 나갈 수 있다.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전열을 수습정비하는 중요한 내용의 하나가 곧 민민운동단체들간의 연대, 연합을 강화하고 대규모 연합전선조직체를 결성하는 것이다.

제반 사실은 한국변혁운동의 현 단계에서 민민운동단체들간의 연대, 연합을 실현하는 것이 매우 절박한 요청임을 실증해 준다.

민민운동단체들간의 연대, 연합을 실현하는 것은 내외 변혁운동의 역사적 경험과 교훈으로부터 제시받는

필연적인 요청이기도 하다.

장구한 기간의 내외 변혁운동의 역사는 변혁운동가들에게 수많은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여러 변혁운동세력이 상호 연대, 연합을 이룩함이 없이는 그 어떤 변혁운동도 성공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 반일민족운동사가 남긴 귀중한 교훈이다.

반일무장투쟁의 초시기 중국 동북지방 도처에 중국인 반일부대(일명 구국군)들과 조선인 민족주의 독립군부대들이 할거해 있었다. 이들은 다같이 반일을 제창하면서도 김일성주석이 이끄는 반일인민유격대에 대해서는 나라도 민족도 모르는 ≪공비≫라며 극도로 적대시했다.

일제의 악선전과 모략책동으로 당시 반일인민유격대는 많은 경우 일제의 앞잡이취급을 당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반일인민유격대에 대한 중국인반일부대들과 독립군부대들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 잡고 그들과의 관계를 개선함이 없이는 반일인민유격대가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었다.

김일성주석은 반일무장투쟁의 초시기부터 각이한 반일무장세력과의 연대, 연합을 실현하는데 큰 힘을 돌렸다. 무지한 중국인 반일부대들이나 반일인민유격대에 대한 극심한 편견을 가진 독립군부대들과의 연대, 연합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정에는 시련도 많았고 가슴아픈 희생도 많이 냈다. 김주석이 가장 아끼는 전우이던 이광과 그의 수하 30여명의 유격대원들이 바로 중국인 반일부대들과의 연대, 연합을 위한 사업과정에서 반일부대들에 의해 집단 학살되었다.

그러나 김주석은 반일인민유격대와 다른 반일무장부대들과의 연대, 연합의 실현여부에 반일무장투쟁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신념과 의지를 굽히지 않고 포기함이 없이 끈질기게 연합전선사업을 전개해 오의성부대나 위사령부대와 같은 중국인반일부대들과 양세봉 등 독립군부대들과의 연대, 연합을 성사시키고 반일무장투쟁을 확대발전에로 이끌었다.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은 중국 동북지방의 민족운동자들은 많은 오욕의 자취를 남겼다.

이들은 본디 ≪정의부≫, ≪신민부≫, ≪참의부≫로 분열돼 끝없는 파쟁을 일삼다가 나중에 동포들의 여론에 밀려 형식상 ≪국민부≫로 통합했으나 그후에도 파쟁은 지속됐다. 그 와중에서 독립군부대들도 흩어지고 지어 그 일부는 일제에게 투항했다. 참으로 그 말로가 비참하기 이를데 없었다. 당시 이들이 파쟁을 지양하고 연대, 연합의 길로 나갔다면 말로가 그렇게 비참하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같은 교훈은 지난 시기 한국의 민민운동단체들의 역사에서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1987년 6월 항쟁은 한국의 반독재민주화운동사상 특기할 대규모 민중항쟁이었다. 명망 있는 한 지성인은 그 본질에 대해 논하면서 그것은 ≪분열이 아니라 통합이었다≫고 피력했다. 요컨대 민주세력의 대통합이 6월항쟁의 승리를 가능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항쟁전야에 각이한 민주화세력간의 연대, 연합 시도가 본격화 됐다. 지역운동세력과 부문운동세력이 하나로 결속되고 민민운동세력이 보수야당과 손을 잡는 등 전국적 판도에서 반독재민주화세력이 하나로 결집했다.

고립분산적으로 움직이던 반독재민주화세력이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하나로 결집됨으로써 그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지지도가 급격히 높아 졌다. 청년학생들을 선두로 사무전문직, 생산직 노동자들이 대거 나섰다. 농민, 중소상공인, 도시영세업자들, 자유직업인들이 확고히 항쟁의 편에 섰다. 천주교와 기독교, 불교 등 종교계가 조직적으로 항쟁을 지지해 나섰다. 20여일 동안 지속된 항쟁에는 5백여만의 대중이 참가해 ≪단군 이래의 대참여≫로 기록되었다. 그야말로 전민중적 항쟁이었고 그 위력 또한 파격적이었다. 얼마 전까지도 거침없이 ≪호헌≫을 고집하던 오만한 5공세력이 백기를 들고 직선제개헌을 약속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민민세력의 대연합이 가져 온 거대한 결과물이었다.

그러나 6월항쟁의 열기가 채 냉각되기도 전에 당시까지는 민주운동 지도자로 행세하던 두 김씨가 또다시 대립해 서로 딴 길을 걷기 시작했다. 저마다 직선제선거에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당시 두 김씨중의 한사람은 ≪4자필승론≫까지 운운하면서 대통령당선을 장담했다. 그러나 결과는 엄청 다르게 나왔다. 겨우 유효투표수의 36.8%의 지지표밖에 받지 못한 군부출신의 노태우씨가 1위로 당선되었다. 두 김씨의 득표율을 합치면 55.2%에 이르렀지만 그것이 양분됨으로써 그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던 것이다. 만일 그때 두 김씨가 서로 대립하지 않고 어느 쪽으로든 하나가 되어 선거를 치렀다면 군부독재는 5공으로 막을 내렸을 것이며 또 그렇게 됐더라면 한국의 민주화과정도 훨씬 더 빨리 진척되었을지 모른다.

변혁운동에서 각이한 변혁세력간의 연대, 연합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다른 나라 변혁운동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란에서의 반황제, 반미 회교운동을 보기로 하자. 이 운동은 2천 5백여년동안 지속되어온 세습적 군주제를 청산하고 미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매우 방대한 투쟁이었다.

당시 이란의 황제이던 팔레비는 친위병 1만 3천명, 비밀경찰 5만 4천명, 정복경찰 13만명, 특무 20만명, 헌병 1만명, 군대 43만명 등 막강한 폭압역량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팔레비황제는 미국의 적극적인 비호를 받고 있었다. 당시 이란에는 4만 3천여명의 미군사고문과 기술요원들이 상주하고 있었으며 공식적으로 확인된 CIA 요원만도 2천명을 넘었다. 또한 군사적인 위협을 목적으로 만 지역에 상시적으로 방대한 미해군무력을 배치하고 있었다.

팔레비황제는 미국의 적극적인 비호 밑에 자체의 방대한 폭압역량에 의거해 어떻게 하든 친미군주제정권을 온존시키고자 필사적 노력을 다 했다.

그러나 이란민중은 회교지도자 호메이니를 중심으로 하나로 똘똘 뭉쳐 아름찬 변혁과제를 1977년 5월부터 1979년 2월까지 2년도 못되는 단기간 내에 성공시켰다.

이란에서의 반미, 반황제 운동승리에 작용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모든 반미, 반황제 운동단체들의 연대, 연합이 실현된 것이다.

당시 이란에는 이란인민당(공산당의 전신), 이란민족전선, 학생연맹 등 서로 다른 정치적 지향과 군중적 기반을 가진 반미, 반황제 운동단체들이 많았다. 각 단체들은 보수와 진보, 계급, 계층의 이해관계의 한계를 벗어나 호메이니의 왕조타도와 민주회교공화국수립노선을 일치하게 지지했으며 운동의 전기간 반미, 반황제 세력들의 연대, 연합을 견지했다.

팔레비는 각 반정부단체들의 연대, 연합을 파탄시킬 목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이 쏘련의 사주를 받고 있다≫, ≪이란애국자들이 올바른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이란에 공산독재정권이 서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반미, 반황제세력들의 연대, 연합을 파탄시키고 특히 회교세력과 진보민주세력간에 결정적인 쐐기를 박으려고 했다.

그러나 운동지도자들은 팔레비의 음모를 제때에 간파하고 그것을 분쇄함으로써 항쟁단체들간의 연대, 연합과 행동통일을 끝까지 견지했으며 이로써 반미, 반황제 운동에서 높은 대중성이 보장되게 했다.

반미, 반황제 운동의 결정적 시기가 임박한 1978년 12월 10일과 11일 2일간에 걸쳐 진행된 회교순교제기념시위투쟁에는 전국적으로 2, 500여만명(수도에서만 3백만명)이 참여했으며 항쟁이 결정적시기에 들어 선 1979년 2월 이후 투쟁에는 수도에서만도 매일 평균 4백만명이상의 시민들이 궐기했으며 그 와중에 병사들이 집단적으로 시위군중편에 합세함으로써 결국 무장봉기로 발전했고 팔레비친미정권을 타도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사례는 이란에서의 반미, 반황제 운동 외에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제반 사실은 한국 민민운동의 현단계에서 민민운동단체들간의 연대, 연합을 실현하고 더 나아가 그것을 대규모 연합전선조직체로 발전시키는 것이 변혁운동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 전제임을 확증해 주고 있다.

2) 한국변혁운동의 현 단계에서 결성해야 할 연합전선조직체는 민족민주연합전선

연합전선조직체의 성격은 소여시기 변혁운동의 근본과제와 구체적인 운동상황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오늘 한국에서는 사회의 자주화실현이 전반적인 변혁운동과제수행에서 관건적인 과제로 되고 있다. 그리고 군부독재는 이미 제거되었지만 반민주적 군부독재잔재들이 사회생활의 각 분야에 뿌리 깊이 남아 있어 의연히 한국사회발전의 근본걸림돌로 되고 있다. 이로부터 사회의 민주주의적 변혁을 이룩하는 것도 의연히 변혁운동의 근본과제로 남아 있다.

현실적으로 한국변혁운동에서는 1980년 광주민중항쟁이후 자주화운동이 계속 주축을 이루어 왔다.

이로부터 한국변혁운동의 현단계에서 결성해야 할 연합전선조직체는 마땅히 민족민주연합전선으로 될 수밖에 없다.

민족민주연합전선조직체의 근본특징은 자주화과제를 근본적이고도 선차적인 것으로 내세우고 그 과정속에서 민주화의 과제와 각 계급, 계층들의 요구도 해결해 나가는 연합전선조직체라는데 있다. 여기에서 자주화과제와 민주화과제의 상호관계는 전자가 기본과제, 전략적 과제라면 민주화과제는 그의 전술적 과제로서 이 두 과제를 다 수행해야만 민족민주연합전선조직체로서의 주되는 목표의 하나인 자주적 민주정권 수립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

자주화와 민주화의 양대 과제를 안고 있는 민족민주연합전선조직체는 지금까지 한국변혁운동에서 경험했던 다양한 형태의 연합전선조직체들에 비할 수 없는 광폭의 연합전선조직체이다. 따라서 한국변혁운동의 현단계에서 민민연합전선조직체를 결성하는 것은 대중적변혁운동역량을 준비하는데서 전환적인 국면을 열어 놓는 것으로 된다.

민족민주연합전선조직체는 단결과 공동투쟁의 기치로 되는 기본구호와 정치강령을 올바르게 제시해야 한다.

오늘 한국변혁운동에서 민민연합전선조직체가 제시할 기본구호는 자주화이다. 자주화구호는 한국에서 미국의 식민지지배체제를 끝장내고 민족자주정권을 수립함으로써 민족적 자주권이 완전히 실현된 자주화된 민주사회를 건설하려는 민중의 지향을 반영하고 있다.

자주화구호는 또한 한국변혁운동의 기본추이와 일치하는 구호이다. 앞에서 이미 이야기했듯이 한국의 변혁운동은 1980년 광주민중항쟁이후 자주화운동을 주축으로 해 전개되어 왔으며 그러한 속에서 그것이 한국변혁운동의 근본지향으로, 추세로 됐다.

오늘 한국민중에게 있어서 미국의 식민지지배와 간섭은 사회정치적인 자유와 권리, 더 나아가 생존권까지 억제, 유린당하는 기본적이며 주되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 미국의 식민지지배와 간섭을 끝장내지 않고서는 사회의 민주화도 조국통일도 실현할 수 없다. 따라서 민중 속에서 미국이야말로 민족, 민중이 겪는 모든 불행의 근원적인 존재라는 인식이 날로 분명해 지고 확산되고 있다. 이것은 자주화의 구호가 한국민중의 가장 근본적이며 공통적인 이익을 반영한 구호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기본구호는 문자 그대로 극히 간명하게 표현되는 정치적 목표인 것만큼 각계층 민중의 다양한 요구와 지향은 정치강령에 반영해 실현해 나가게 된다.

민민연합전선조직체의 정치강령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한국민족민주운동세력앞에 나서고 있는 3대과제인 민족자주, 민주주의, 조국통일을 현 상황에 맞게 구체화해 제기하는 것이다. 이것은 민민연합전선조직체의 총적인 활동방향과 정책목표를 명백히 밝혀 주는 것으로써 실천적으로 의미가 매우 크다.

한편 이 3대과제를 구체화하는 민족자주문제에서는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급격히 고양되고 있는 광범한 민중의 반미자주운동을 참작해 미군에 의한 주민대학살진상규명과 보상, 미군범죄근절, 미군기지사용료징수, 미군에 의한 환경파괴근절, 도심의 미군기지철수, 미군주둔비용분담반대, ≪소파≫전면개정, 점진적 미군철수프로그램의 제시 등의 반미자주적요구들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민주화문제에서도 민중의 요구에 걸맞게 국보법의 즉각철폐, 준법서약제의 폐지, 군부정권에 복무한 정치권의 퇴출, 양심수 전원석방, 사상과 학문, 표현의 완전한 자유보장 등 참다운 민주화를 위한 제반 요구들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통일문제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이후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민중의 조국통일열기에 맞게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지지와 그 철저한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원칙적인 내용을 제시함과 동시에 사회 각 분야에 잔존하는 남북공동선언이행에 걸림돌로 되는 일체의 반통일적 요소들, 반통일적인 수구기득권세력들을 극복할 데 대한 투쟁과업, 일체의 반통일적 행위들을 엄금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데 대한 문제들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한백연

2000년 9월 집필 11월 발표